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피에르조제프프루동
경제적모순들의체계혹은빈곤의철학제 1 권
1846 년

kr.theanarchistlibrary.org

경제적모순들의체계혹은빈곤의 철학제 1 권

피에르조제프프루동

1846 년

차례

서론 **4**

제 1 장경제학에관해 **28**
Ⅰ. 여러사회의경제에서사실과법의대립 28
Ⅱ. 이론들과비판들의미흡성 33

제 2 장가치에관해 **46**
Ⅰ. 효용가치와교환가치의대립 46

비난하는점은그것이이유도없이생겨났다는것이아니라아주오랫동안그리고아주완고하게어리석은채로남아있다는것이다.

2. 그러나경제학자들은선험적으로, 그리고그것도모순적자료, 혹은더제대로말해서이율배반적자료에힘입어가치로부터일체의개혁관념과개혁희망을배척하는, 그에못지않게심각한잘못을했다. 사회가그가장높은적대의시기에도달했다는바로그것에의해화해와조화가임박했다는것을결코이해하려고하지도않으면서말이다. 그런데이는그전문가들이현대형이상학이밝혀준내용들을더많이고려했더라면정치경제학의주의깊은고찰이이들에게손가락으로만지게해주었을것이다. 실제로인간이성이아는더실증적인모든것에의해이율배반이발현하는곳에는항들의해소전망이, 따라서변혁의알림이있다는것이증명된다. 그런데장바티스트세가해설한바와같은가치관념은정확히이경우에들어온다. 그러나경제학자들은대부분그리고의식할수없는숙명에의해철학적움직임에낯선채로있어가치의본질적으로모순적인, 혹은그들이말하듯가변적인특성이동시에그구성성의, 말하자면그상당히조화롭고확정가능한본성의공인된표징이라고생각하기를삼갔다. 다양한경제학파에어떠한불명예가돌아가든지그학파들이사회주의에했던반대는오직그들자신의원리들에대한이잘못된개념에서유래한다는것이확실하다. 천가지것들중하나

서론

이새논문들의대상이되는주제에들어가기전에하나의가설, 의문의여지없이이상해보이겠지만그것없이는앞으로나아가고이해를받는것이내게는불가능한하나의가설을고찰할필요가있다. 나는신의가설에대해말하고자한다.

신을가정하는것은그를부정하는것이라고말할것이다. 당신은어째서그를긍정하지않는가?

신성에대한믿음이의심스러운견해가되었다면이것이내잘못인가? 지고의존재에대한단순한의심이이미허약한정신의표상으로주목된다면, 그리고그것이모든철학적유토피아중에세상이더이상감내하지않는유일한유토피아라면? 위선과어리석음이어디서나이거룩한꼬리표아래숨겨져있다면이것이내잘못인가?

어떤박사가우주안에서미지의힘이항성들과원자들을이끌며모든기계장치를움직인다고상상한다면, 그에게이가정은완전히공연한것으로서자연스러운것밖에없다. 그것은받아들여지고, 권장된다. 인력引力을보라. 결코입증하지는못할, 그러면서도발명자에게영광이되는가설이다. 그러나인간사의흐름을설명하기위해내가상상할수있는모든조심성을지닌채신의개입을가정한다면나는확실히과학계에심각성을촉발할것이고가혹한비평가들의귀에거슬릴것이다. 그토록우리의진심은섭리를놀라울만큼불신해왔고, 그토록온갖복장을걸친돌팔이들은이교리혹은이허구를매개로수작을떤다. 나는우리시대의유신론자들을보았고, 신성모독은내입술위에번져왔다. 나는인민, 브리덴 [1] 이신의가장좋은벗이라고부른이인민의신앙을고찰했으며, 나도모르게나오는부정에몸서리쳤다. 상반되는감정들에괴로워진나는이성에호소했다. 그리고수많은교조적대립중에서오늘날나에게그가설을주문하는것은이이성이다. 신에게적용되는선험적교조주의는불모인채로있었다. 그가설이우리를또어디로데려갈지누가알겠는가?

그러므로나는내가슴의침묵속에서일체의인간적인고려를멀리하고사회혁명들의신비를공부하면서신, 위대한미지의것이나에게어떻게하나의가설, 말하자면필요한변증법적수단이되었는지를말하고자한다.

I

리고같은명목으로부정가능하다는것을알게될것이다. 아주우스운강조를하면서사람들이말했듯이모든진리, 모든관념은모순에서, 즉동일순간그리고동일관점에서긍정되기도하고부정되기도하는어떤것에서나온다는것, 모순을오류의두드러진표정으로삼는낡은논리를아주멀리기각할필요가있다는말인가? 이잠담은신앙도선의도없이자신들의무례한무익성을유지하기위해회의주의를영구화하려고일하는궤변론자들에게걸맞다. 이율배반은오인되자마자곧틀림없는모순을가져오므로, 사람들이특히각사물을그효과에따라지칭하기를좋아하는프랑스어에서는이를서로혼동했다. 그러나모순도, 분석이모든단순관념의근저에서발견하는이율배반도참의원리는아니다. 모순은언제나무효와동의어이다. 때로는같은이름으로불리는이율배반은실제로진리의선구자이다. 말하자면진리에재료를공급한다. 그러나이율배반이진리는아니며, 그자체로본다면무질서의동인動因이고, 거짓말과악의고유한형태이다.

이율배반은두항으로구성되는데, 그두항은서로에게필요하지만언제나상반되고, 서로를파괴하는경향을띤다. 이두항중앞의것은정명제thèse, 입장이라는이름을얻었고, 뒤의것은반명제 anti-thèse, 반대입장이라는이름을얻었다는것을감히덧붙일생각이거의없지만이발걸음을내디딜필요가있다. 이메커니즘은지금은아주잘알려져서초등학교과정에서도곧모습을드러내게되리라희망한다. 우리는곧이두영零의조합에서어떻게하나가, 혹은이율배반을사라지게하는관념이솟아나는지를보게될것이다.

이처럼가치에서는교환될수없는것은유용하지않고, 유용하지않다면교환가능한것은없다. 사용가치와교환가치는불가분이다. 그러나산업의진보에의해수요가달라지고무한히증식되며, 제조는결과적으로물건의자연적효용을높이고결국일체의유용한가치를교환가치로전환하는경향이있는반면, 다른한편으로생산은그수단들의위력을끊임없이증대하고언제나그비용을낮추어물건의매매가치를그원초적효용으로되돌리는경향이있다. 그래서사용가치와교환가치는끊임없는투쟁중에있다.

이투쟁의효과들은알려져있다. 무역전쟁, 판로전쟁, 충색, 침체, 금수禁輸, 경쟁의학살극, 독점, 임금의삭감, 최대의법칙, 운명의극심한불평등, 빈곤이가치의이율배반에서유래한다. 여기서그에대한증명을하는것을면해달라. 이는다음장들에서자연스럽게다시나올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이이율배반의끝을아주옳게요구하면서도그원천을오인하고거기서공적권위의명령에의해서복구할수있었던상식의착각만을보는잘못을범했다. 이로부터한심한감상感傷의폭발이나온다. 이는사회주의를실증적정신에게아주재미없는것으로만들었고극히황당한환상을전파해매일같이수많은바보들을만들어낸다. 내가사회주의를

련된상태도가장고립된나라들처럼과잉생산에종속된다. 파리와런던의 증권시장보다가격인하와가격인상이더잘알려지는곳이어디인가?

가치의진자운동과그로부터흘러나오는불규칙적효과들로부터사회주의자들과경제학자들은각자의입장에서상반된결과를, 그러나마찬가지로그릇된결과를도출했다. 전자는정치경제학을폄훼하고이를사회과학에서제외하려고말했다. 후자는두항사이의일체의화해가능성을기각하고여러가치의공측불가능성, 따라서운명의불평등을상업의절대법칙으로언명하기위해말했다.

나는양측에서오류는대등하다고말한다.

1. 가치의모순적관념은유용한가치와교환가치의불가피한구분에의해아주잘조명된것으로, 이는정신의잘못된인식에서나오는것도아니고, 불량한용어사용에서나오는것도아니고, 실무의어떠한착각에서나오는것도아니다. 그것은사물의본성에내재하며, 사고의일반형태, 즉범주로서이성에과해진다. 그런데가치개념이정치경제학의출발점이므로, 그과학의모든요소들은그자체로모순적이고서로대립된다. 나는미리과학이라는말을사용한다. 그래서각각의문제에관해경제학자는똑같이반증가능한긍정과부정사이에끊임없이처하게된다. 결국현대철학에서성별聖別된말을사용하자면, 이율배반 l'antinomie 이정치경제학의본질적특성, 즉그것의사형선고이자그것의정당화론이다.

안티노미 antinomie, 문자적으로는반법反法인이것은원리상의대립혹은관계에서의적대를말한다. 이는모순혹은자가당착 antilogie 이대화에서의대립이나상반성을가리키는것과같다. 나는이런스콜라적세부사항, 아직도대부분의경제학자에게는별로익숙하지않은이것에들어가는데대해용서를구한다. 이율배반은하나는긍정적이고하나는부정적인두얼굴을한법칙의개념이다. 예를들어인력引力이라고불리는법칙이그런것이다. 이는태양의둘레를행성들이돌게하며, 기하학자들은이를구심력과원심력으로분해했다. 또물질의무한가분성문제도그러한데, 칸트는이것이동등하게그럴듯하고반증불가능한논리에의해부정이되었다가또긍정이될수있다는것을증명했다.

이율배반은사실을표현할뿐이며, 정신에거역할수없는권위로과해진다. 고유한의미에서모순은터무니없는것이다. 이율배반 contra-lex 과모순 contra-dictio 간의이구분은, 어떤의미에서관념과사실의일정한질서에서모순의논리가수학에서와같은가치를더이상가지지않는다고말할수있었는지를보여준다.

수학에서는한명제가거짓으로입증되면, 역의명제가참이고그반대도성립하는것이규칙이다. 이는수학적증명의위대한수단이기도하다. 사회경제학에서이는더이상그와같지않다. 이처럼예를들어재산권이그결과들에의해거짓된것으로증명되었다고해서그상반된공식인공동소유 communauté 가참이되는것은아니며, 그것은재산권과동시에그

만일내가여러모습을띠며달라져가는신의관념이라면, 나는이관념이무엇보다먼저사회적관념이라고본다. 그말은그것이개인적개념형성이라기보다는훨씬더집단적사유의신앙행위라는것이다. 그런데어떻게, 그리고어떤계기로이신앙행위가생겨나는가? 이를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도덕적·지적관점에서사회혹은집단적인간은무엇보다도행위적자생성, 다른말로본능에의해개인과구별된다. 개인은그가충분히알고가입을거절하거나동의할수있는주인이되는동기에만복종하거나복종한다고상상하는반면, 한마디로그는스스로자유로우며, 그가자신을이성적이고교육을잘받았다고생각할수록그만큼더자유롭다고판단하는반면, 사회는첫눈에자의성과기획의기척을아무것도보이지않는, 그러나조금씩사회바깥에존재하는상급협의회의지도를받는것으로보이며사회를미지의끝을향해불가항력으로밀어붙이는힘들에종속된다. 군주정과공화정의수립, 카스트구분, 사법제도등은그원칙을가리키거나그이유를제시하기보다그효과를특기하는것이훨씬더쉬운이사회적자생성의그만한발현이다. 보쉬에, 비코, 헤르더, 헤겔에이어역사철학에투신한자들의일체의노력자체가지그까지사람의일체의움직임을주재하는섭리적운명의존재를확증하는것이었다. 또나는이와관련해사회는움직이기전에결코자신의수호신을일깨우지않는일이없다는것을관찰한다. 마치이미그의자생성이결의한것을위로부터명령받기를원하듯이. 운세, 신탁, 희생제사, 대중적갈채, 공적기도는나중에사회의이런의도성의가장통상적인형태이다.

이신비적이고아주직관적이며, 또한말하자면초사회적인능력은사람들에게서는조금밖에나혹은전혀감지되지않지만인류위에서는영감을주는신령처럼떠있는것으로서심리학일체의원초적사실이다.

그런데한꺼번에개체적취향과집단적충동에복속한다는점에서는사람과같은다른동물종들과달리, 사람은자신을움직이는본능혹은운명을인식하고자기자신의생각에기별奇別하는특권을지닌다. 우리는뒤에가서, 사람이또한그것을꿰뚫고심지어그것의명령에영향을미칠능력도소유함을보게될것이다. 그리고 (거룩한숨에대한) 열광으로황홀해지고관통된사람의첫번째움직임은자신이의존함을느끼는, 그가신, 즉생명, 존재, 영, 아니더간단하게'나'라고이름붙이는보이지않는섭리를찬미하는것이다. 왜냐하면고대언어에서이말들은동의어이고, 동음어이기때문이다.

'나는나이며, 나는너와협상한다'고신이아브라함에게말한다. 또모세에게는'나는 (존재하는) 나이다'라고말한다. '너는이스라엘자녀들에게존재가나를보낸다고말하라'고한다. 존재와'나'라는이두말은사람들이말했던가장종교적인원어에서는같은특성을지닌다.[2] 게다가모세라는기관에의해입법자가되는여호와 Ie-hovah 가자신의영원함을증

언하고자신의본질로써맹세할때, 그는맹세의양식으로'나'라고말한다. 혹은힘을배가하여, '나, 존재'라고말한다. 역시히브리인들의신은모든신들중가장인간적이고가장자발적이며, 인류의직관을그보다더잘표현하는것은없다.

그러므로신은인간에게하나의나로서, 순수하고영원한본질로서나타난다. 군주가신하앞에나서듯이인간앞에나서며때로는시인, 입법자, 점쟁이의입술로무사 musa, 노모스 nomos, 누멘 numen 으로스스로를표현하고, 때로는민중의갈채로써스스로를표현한다. 민民의소리는신의소리이다 (vox populi vox Dei). 이는어떻게참된신탁과거짓된신탁이있는지를설명해줄수있기도하다. 태어날때부터격리된개인들은왜스스로신의관념에이르지못하는반면, 그관념이집단적영에의해제시되자마자이를냉큼포착하는가. 끝으로중국인들과같은정태적인종족은어떻게해서그관념을결국잃어버리는가.[3] 우선, 신탁들에대해말한다면, 신탁의일체의확실성은신탁에영감을불어넣는보편적의식에서나온다는것이명확하고, 다음으로신관념에대해말하자면, 어째서압류와현상이마찬가지로그에치명적인지를쉽게이해할수있다. 한편으로소통의결여는영을동물적이기심에흡수된채로놓는다. 다른한편으로운동의부재는사회생활을조금씩일상사와기계체제로변화시켜결국자발성과섭리의관념을제거한다. 이상한일이다! 진보에의해망하는종교는또한부동성에의해서도망한다.

군더더기가되겠지만, 신성의첫번째계시인보편적이성의모호한, 말하자면객체화된의식과관련해서우리는신의실재성자체혹은비실재성에관해절대아무런선입견도가지지않는다는데주목하자. 실제로신이집단적본능혹은보편적이성말고다른것이아님을인정하자. 그러면또한이보편적이성이라는것이무엇인지를알아야만한다. 왜냐하면이어서보겠지만, 보편적이성은결코개인적이성안에서주어지지않기때문이다. 다시말해, 사회적법칙들에대한지식혹은집단적관념들의이론은순수이성의근본개념들로부터도출됨에도불구하고아주경험적이며, 결코연역이나귀납혹은종합을거쳐선험적으로발견되지않는다. 따라서우리가이법칙들을그자신의작품으로서연결시키는보편적이성, 별개의영역에서순수이성과는구분되는실재로서존재하고사유하고일하는보편적이성은, 세계체제가수학법칙들에따라창조됨에도불구하고수학과는구분되는, 그리고그로부터수학만의존재를도출할수는없을실재이듯이, 현대적언어로하면바로고대인들이신이라고불렀던것이라는결과가된다. 그말이바뀐것이다. 그것에대해우리가아는것은무엇인가?

이제신적관념의진화를추적해보자.

지고의존재가일단최초의신비적판단에의해설정된후인간은즉각또다른신비주의인유비 analogie 로써이주제를일반화한다. 신은말하자면아직도하나의점에불과하다. 곧그는세상을가득채울것이다.

다. 뒤의경우에서는나다. 번갈아가며누리는자유를없애보라. 그러면교환은더이상산업적연대성의실행이아니다. 이는강탈이다. 지나가는말이지만공산주의는결코이난점을정복하지못할것이다.

그러나자유와함께생산은필연적으로불확정적이다. 수량에서나품질에서나그러하다. 그래서경제적진보의관점에서, 소비자들의마음에든다는관점에서와마찬가지로그평가는영구히자의적으로남으며언제나상품의가격은요동칠것이다. 잠시모든생산자들이고정된가격에판매한다고가정해보자. 더저렴하게생산하거나더잘생산해서남들은아무것도벌지못할동안많이벌사람이있을것이다. 어떤식으로든균형은깨진다. 상업의침체에대비하기위해생산을꼭필요한만큼으로한정하기를원하는가? 이는자유를유린하는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내게서선택할능력을빼앗고최대를지불하도록저주하기때문이다. 당신은경쟁, 염가廉價의유일한보장책인경쟁을파괴하고, 밀수를유발한다. 이처럼상업적자의성을막기위해당신은행정적자의성에뛰어들것이다. 평등을창조하기위해당신은자유를파괴할것이다. 이는평등자체의부정이다. 당신이생산자들을단일한작업장에모은다면, 나는당신이이비밀을파악하리라생각할까? 그것으로는아직충분하지않다. 당신은또한소비자들도하나의공통살림에모아볼필요가있다. 하지만그때당신은그문제를방기한다. 가치관념을폐기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다. 이는노동을폐기하는것과마찬가지로불가능한일이다. 그관념을확정하는것이중요하다. 개인적자유를죽이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그것을사회화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런데유용한가치와교환가치간의대립을일으키는것은사람의자유의지이다. 자유의지가존속하는한이대립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 그리고사람을희생시키지않는다면, 자유를어떻게희생시킬것인가?…

그러므로자유로운구매자의자격으로나는내필요의심판자이고, 물건의적절성에대한심판자이고, 내가매기고싶은가격의심판자라는것, 그리고다른한편으로자유로운생산자의자격으로당신은실행수단의주인이고, 결과적으로당신은당신의비용을낮출능력을가진다는것, 그것에의해서만자의성이불가피하게가치안에도입되며, 가치가유용성과의견사이에서진자운동을한다.

그러나이진자운동은경제학자들에의해완벽하게특기된것으로서모순의효과말고는아무것도아니다. 이는큰규모로옮긴다면극히예기치못한현상들을낳는다. 3 년간의풍작은러시아의어떤지역에서는공적인재난이다. 우리의포도원에서 3 년의풍작이어떤포도원주인에게는재난인것과마찬가지이다. 나는잘모르지만, 경제학자들은이시련을판로의부족탓으로돌린다. 역시판로는그들사이에서는거대한문제이다. 유감스럽게도판로의이론은맬서스에게들이대고자했던해외이주의이론과같다. 이는논점선취 pétition de principe 의오류이다. 판로가가장잘마

가치와교환가능한가치는서로에게필요한가치들로서서로반비례한다. 그러므로나는왜유용성이아닌희소성이고가高價의동의어인지를묻는다. 왜냐하면, 상품들의가격상승과가격하락은그생산에지출된노동량과독립적이기때문이다. 이점을주목하자. 그상품들에드는비용의많고적음은물가공시표상의변동을설명하는데조금도도움이되지못한다. 가치는자유의여신처럼변덕이심하다. 유용성도노동도고려하지않는다. 그러기는커녕사물의통상적흐름에서특정한예외적교란을제외하면, 가장유용한물건들이언제나더낮은가격에제공되어야할것같다. 다시말해, 가장편안하게일하는사람들이가장좋은보수를받고, 자신들의수고에피와땀을쏟는이들은가장나쁜보수를받는것이정당한것같다. 그래서그원리를마지막결과까지따라가면, 세상에서가장논리적으로, 그사용이필요하고수량이무한정한물건들은무료여야하고, 그쓸모가없고희소성이극히큰물건들은측량할수없는가격을가져야한다고결론을내리게될것이다. 그러나아주당황스럽게도실무는결코이극단을인정하지않는다. 한편으로어떠한인적생산물도결코무한의크기에도달할수없다. 또한편으로가장희소한물건들은어느정도는쓸모있을필요가있으며, 그렇지않으면그것들은어떠한가치도가질수없을것이다. 유용한가치와교환가능한가치는그러므로비록그본성상끊임없이서로를배제하는경향을띰에도불구하고서로숙명적으로연관된상태로있다.

나는이주제를해명하기위해제시할수있을입씨름의반박으로독자를피곤하게하지않을것이다. 가치관념에내재하는모순에관해지목가능한원인도, 가능한설명도없다. 내가말하는사실은사람들이원시적이라고칭하는사실들중하나, 즉다른사실들을설명하는데도움이될수있지만그자체로는단순체라고부르는것처럼불가해한사실이다. 그러한것으로는정신과물질의이원론이있다. 정신과물질은별개로본다면각각이정신의특수한관점을가리키지만어떠한실재에도부응하지않는두항이다. 마찬가지로사람에게아주다양한산물들에대한필요가이를자신의노동으로조달할의무와함께주어질때유용한가치의교환가능한가치에대한대립이필연적으로나오며, 이대립으로부터정치경제학의문턱자체에관한모순이생겨난다. 어떠한지성도, 어떠한신적, 인간적의지도이를막을수없을것이다.

이처럼기괴한설명을구하는대신, 그모순의필연성을충분히확인하는것으로만족하자.

창조된가치들이얼마나풍부하든, 그가치들이서로교환되는비율이어떠하든우리가우리생산물을교환하려면당신이수요자인경우내생산물이당신에게맞을필요가있고, 당신이공급자인경우내가당신의생산물을받아들일필요가있다. 왜냐하면아무도타인에게자기자신의상품을강요할권리가없기때문이다. 유용성의, 혹은같은말이지만필요의유일한심판자는구매자이다. 그러므로앞의경우에서당신이적합성의심판이

인간이자신의사회적자아를느끼면서창조자에게경배한것처럼, 그는동물, 식물, 연못, 기상氣象그리고우주전체에서충동과의도를발견하면서각물체에그리고전체에그것을주재하는혼, 영또는신령이있다고본다. 사회라고하는자연의가장높은정점을신으로만드는이귀납추론을가장낮은존재, 무생물이며무기체인물체들에까지추구해가는것이다. 인간은그러므로창조의상위극으로간주되는집단적자아로부터마지막의물질원자에까지신의관념, 즉인격적, 지성적관념을확장하는데, 이는창세기가신자신이하늘을펼쳤다고, 즉만물을담는용기인공간과시간을창조했다고우리에게이야기해주는것과같다.

이처럼조물주인신없이는우주와인간은존재하지않을것이다. 이는사회적신앙고백이다. 그러나또한인간없이신은생각되지못할것이다.— 이간극을건너가자 — 신은아무것도아닐것이다. 인류가조물주를필요로한다면, 신, 신들은그에못지않게계시자를필요로한다. 신통보神統譜, 천국과지옥과그주민들의역사, 인간사고의이꿈들은어떤철학자들이역으로신의꿈이라고칭한우주의상대물이다. 그리고사회의작품인이신학적창조물안에얼마나웅장함이있는가! 데미우르고스의창조물은지워졌다. 우리가전능자라고칭한자는패배했다. 그리고수세기동안유한한인간들의마법에홀린상상은올림포스의기적을주시함으로써자연의광경으로부터돌려졌다.

이환상적지역에서내려오자. 가엾은이성이문을두드린다. 그의무서운질문에대답할필요가있다.

신이란무엇인가? 하고이성이묻는다. 그는어디에있는가? 그는몇명인가? 그리고그는무엇을원하는가? 그는무엇을할수있는가? 그는무엇을약속하는가? 그리고보라, 분석의횃불에하늘과땅과지옥의모든신들이내가알지못할어떤무체의, 불투명한, 부동의, 이해할수없는, 정의할수없는, 한마디로존재의모든특성의부정인것으로환원된다. 사실상사람이각물체에특수한영이나신령을부여하든지, 우주를유일한권능에의해통치되는것으로의식하든지그는언제나무조건적인, 즉불가능한존재자를상정하고그로부터그가달리의식할수없다고판단하는현상들에대한어떠한설명이든지이를도출하기만한다. 신과이성의신비다! 자신의우상숭배대상물을점점더합리적으로만들기위해신자는그로부터그를실재하는것으로만들어줄모든것을계속해서벗겨낸다. 그리고논리와천재성의기적들이있은후에존재의특성들은무無의특성들과같아진다. 이런진화는불가피하고숙명적이다. 무신론이일체의변신론근저에있다.

이런진보과정을이해시키도록해보자.

만물의창조자인신이의식에의해스스로창조되자마자, 다시말해우리가신을사회적자아의관념에서우주적자아의관념으로높이자마자곧바로우리의성찰은완성을핑계로그신을파괴하는데착수한다. 신관념을완성한다! 신학적교리를청산한다! 이는인류의두번째환상이다.

분석정신, 지칠줄모르고끊임없이질문하고논박하는사탄은조만간에종교적교조주의에대한증명을시도해야했다. 그런데철학자가신관념을정하든아니면그가이를확정불가능이라고선언하든, 그가이에이성을가지고접근하든아니면그것을이성에서멀리떼어놓든, 이관념은공격을입는다고나는말한다. 사변이멈추는것은불가능하니장기적으로신관념은반드시사라진다. 그러므로무신론운동은신학적비극의제 2 막이다. 그리고이제 2 막은제 1 막에의해주어지며, 결과가원인에의해주어지는것과마찬가지다. 시편의시인은하늘은영원한존재의영광을이야기한다고말한다. 이렇게덧붙이자. 그리고하늘의증언은그를권좌에서내쫓는다고.

사실상사람은현상들을관찰함에따라자연과신사이에서중간자들을본다고믿는다. 이는수효, 형상그리고계기繼起의관계들이다. 유기적법칙, 진화, 유비들이다. 이는발현물들이그안에서생겨나는, 혹은서로를변함없이부르는일정한연관이다. 그는자신이그일부를이루는이사회의발전에서사적의지들과숙의들이공동으로무언가를위해들어간다는것도관찰한다. 그리고그는위대한영이세상에직접, 그리고몸소작용하지않으며, 자의적으로변덕에따라작용하는것도아니고감각적힘이나감각기관에의해, 그리고규칙에따라매개적으로작용한다고생각한다. 그리고생각에의해인과의사슬을거슬러올라가그는신을균형잡는막대에서처럼한쪽끝에가져다놓는다.

모든하늘저너머에하늘의신이산다

이렇게한시인이말한다. 이처럼이론의첫번째도약으로부터지고의존재는동력, 바퀴통, 홍석虹石의기능으로전락하며, 좀더시시한비유를해본다면군림하지만다스리지않는, 법률을지키겠다는맹세를하고, 법률을집행하는장관들을임명하는입헌군주의기능으로전락한다. 그러나자신을매혹하는신기루의인상때문에유신론자는이우스운체계에서우상의경이성의새로운증거만을본다. 이우상은자신의피조물들을자신의권능에수단으로봉사하게하며, 인간들의지혜를자기의영광으로돌리게한다고본다.

곧, 영원한존재의왕국을제한하는데만족하지못해서인간은점점더신을죽게하는존경으로써그왕국을분점하기를요구한다.

내가영이고, 감각적이며관념들을내놓는자아라면, 나역시절대적존재에몫이있다고유신론자는계속하여말한다. 나는자유롭고, 창조자이고, 불멸하고, 신과동격이다. 코기토에르고숨 Cogito, ergo sum; 나는생각한다. 고로나는존재한다. 바로이것이'에고숨키숨 Ego sum qui sum : 나는 (존재하는) 나이다'의보조명제요번역이다. 철학은성서와일치한다. 신의존재와영혼의불멸성은동일한판단으로의식에의해

밀스무자루를수확해자기가족과함께먹을생각인농부는열자루만수확한경우보다두배가부유하다고스스로를판단한다. 마찬가지로천쉰마를짠주부는스물다섯마밖에짜지못한경우보다두배가부유하다고스스로생각한다. 가정에관련해서는그들둘다옳다. 그러나외부관계의관점에서는그들이완전히틀렸을수있다. 밀의수확이나라전체에서두배라면, 스무자루는수확이절반이었더라면열자루가지녔을가치보다더낮은가치를지닐것이다. 또한비슷한경우에천쉰마는스물다섯마보다가치가덜나갈것이다. 그래서가치는쓸모의생산이증가하면서줄어들고, 생산자는여전히풍요해지면서도빈곤에이르게될수있다. 그리고이는치료법이없어보인다. 안녕의유일한수단은공산품이모두공기와햇빛처럼무한한양이되는것일것이기때문이다. 이는터무니없는것이다. '내이성의신이여! 터무니없는이야기를하는것은경제학자들이아닙니다'하고장자크 [11] 는혼잣말했을것이다. 자신의정의定義에충실하지못한것은정치경제학자체다. 거짓으로말한것은사악함그자체다 (Mentita est iniquitas sibi).

앞의예들에서는유용한가치가교환가능한가치를초과한다. 다른경우들에서는더작다. 그렇다면같은현상이벌어지지만, 방향이다르다. 저울은생산자에게유리하다. 그리고당하는것은소비자다. 이는특히흉작때일어나는일이다. 이때생필품의상승은언제나인위적인면이있다. 그기술이라고는별로쓸모도없는물건에, 없어도별지장없는물건에과장된의견상의가치를부여하는직업들도있다. 그런것은일반적으로사치품공예들이다. 사람은심미적열정에의해그소유가자신의허영, 선천적인사치취향, 아름다움에대한극히고귀하고존경받을만한사랑을고도로충족시키는쓸데없는것들에욕심을가진다. 이런종류의물건들의제공자들이투기를하는것은이에관해서다. 환상과우아함을강요하는것은유통에세금을부과하는것못지않게역겹고터무니없는일이다. 하지만이조세는몇몇인기있는기업가들에의해징수되며, 일반의환호가이를보호해주고, 그공로라고는아주흔히취향을왜곡하고, 변덕을생겨나게하는것뿐이다. 그때부터는아무도불평하지않는다. 그리고모든여론의정죄는독점자들에게돌아가는데, 이들은재능덕분에천과빵의가격을몇상팀올리게된자들이다. …

유용한가치와교환가능한가치에서이놀라운대조를표시한것은별것이아니다. 이대조에서경제학자들은아주단순한것밖에보지못하는데익숙해져있다. 이단순성이라고하는것이심오한신비를감추고있다는것을보여줄필요가있다. 이를간파하는것이우리의의무이다.

그러므로나는모든진지한경제학자들에게그문제를번역하거나반복하는것말고다른방식으로생산이증가함에따라어떤원인에서가치가감소하는지를, 그리고역으로산물이감소함에따라바로이가치를크게만드는것이무엇인지를말해달라고주문한다. 기술적용어로말하면, 유용한

등에까지계속된다. 우리의길위에는여기저기함정들이파여있고, 우리머리위에칼이매달려있다. 그러나일체의위험을물리치기위해우리는이성을가진다. 그리고이성은전능이다.

우연이나부주의에의해교환이생산자들중한사람에게금지되거나그의산물이갑자기쓸모없어지게되면, 그의창고가가득차있는데도그는아무것도소유하지못할것임이유용한가치와교환가능한가치의관계에서나온다. 그가희생을많이하고생산을하려는만용을많이부렸을수록, 그의빈곤은더욱심각할것이다. 산물이쓸모가완전히사라지는대신단지축소되었다면, 이는백가지형태로일어날수있는일인데, 노동자는일자리를박탈당하고재앙을겪어서망하는대신가난해지기만할것이다. 남의가치의미미한양을대가로받고자기가치의다량을내주어야해서그의생존은그의판매의적자와같은비율로축소될것이다. 이는그를안락함으로부터궁색한상태로점차이끌어갈것이다. 끝으로산물의쓸모가높아지거나또는그생산에드는비용이덜나가게된다면교환의저울은생산자에게유리한쪽으로기울것이고, 그생산자의복리는이렇게해서밭가는자의별볼일없는처지에서부터일없이노는자의풍요로움으로올라갈수있을것이다, 이감가와부요화의현상은천가지형태로, 천가지조합으로발현된다. 상공업의열띤그리고난감한역할은여기에있다. 경제학자들이영원히지속되리라고믿는것은매복작전으로가득찬이도박이며, 도덕및정치과학아카데미는이윤과임금의이름으로유용한가치와교환가치를화해시키기를, 즉일체의유용한가치들을마찬가지로교환가능하게하고, 역으로일체의교환가능한가치를마찬가지로유용하게할수단을발견할것을요구할때, 알지도못하면서요구하는것이그도박의폐지이다.

경제학자들은가치의이중적특성을아주잘부각시켰다. 그러나그들이마찬가지로말끔하게만들지못한것은그것의모순적본성이다. 여기서우리의비판이시작된다.

유용성은교환의필요조건이다. 그러나교환을제거해보라. 그러면유용성은무無가된다. 이두용어는불가분리적으로연결된다. 그러니모순은어디서나타나는가?

우리가존재하는한우리는노동과교환에의해서밖에존속하지못하며, 우리가더많이생산하고교환하는그만큼더부유하므로각자에게그결과는그만큼그의교환을늘리고이로써그의향유를늘리기위해유용한가치를가능한최대로많이생산하는것이다. 좋다! 가치배가의제 1 의효과, 불가피한효과는가치들을저렴하게하는것이다. 상품이더욱풍부할수록그것은교환에서손해를보고상업적으로감가한다. 노동의필요성과그결과사이에모순이있다는것이정말이아닌가?

나는설명을향해정면으로달려가기전에독자에게사실에유의하도록간청한다.

서주어진다. 전자에서사람은자신의자아를그안에서움직여가는우주의이름으로말하는것이고, 후자에서는자기자신의이름으로말하는것이다. 그러면서도이길과저길에서같은말을되풀이한다는것도알아채지못한다.

영혼의불멸성은신성으로부터의진정한분리이며, 오랜간격후에그최초의출현순간에는옛교리의신자들에게는이단으로나타났지만신적위엄의보완물, 행복과영원한정의의필수적전제물로덜간주된것은아니다. 영혼의불멸성이없으면신을이해하지못한다고정치이론가들과비슷한유신론자들이말한다. 정치이론가들에게는주권적대표부와어디서나종신적인공무원들이왕정의필수조건이다. 그러나학설들의유사성이정확한만큼관념들의모순은명백하다. 역시영혼불멸의교리는곧철학적신학자들의걸림돌이되었다. 이들은피타고라스와오르페우스의세기부터신적특성들을인간의자유와, 이성을신앙과일치시키려고쓸데없이노력하는이들이다! 불신자들을위한승리의주제다! …그러나환상은그렇게빨리물러날수없었다. 영혼불멸의교리, 이는바로그것이창조되지않은존재의제한이었기때문에진보였다. 그런데인간정신이진리의부분적획득으로잘못을범하더라도, 이는결코퇴보하지않으며, 그발걸음에서이꾸준함은그의불가오류성의증거다. 우리는그새로운증거를획득할것이다.

신과닮음으로서사람은신을자신과닮게만들었다. 수세기동안혐오스러운것으로칭해진이상관성은새로운신화를결정한보이지않는힘이었다. 가부장들의시대에신은인간과연합했다. 지금협적을공고히하기위해신은인간이되려고한다. 그는우리의살, 우리의용모, 우리의열정, 우리의기쁨과고통을취할것이며, 한여성에게서태어나우리처럼죽을것이다. 그러고는무한의이낮아짐후에사람은논리를전환해그때까지는창조자라고불렀던자를보전자, 구속자救贖者로자신이신의이상을더키웠다고주장할것이다. 인류는아직은'신인것이나다'라고말하지않는다. 신은내안에있다, 임마누엘, 신이우리와함께 noniscum Deus 있다고. 그리고철학이고집을가지고, 보편적양심이경악하면서한목소리로'신들이도망친다 excedere deos'고외친순간, 열광적찬미와초인적신앙의열여덟세기가시작되었다.

그러나숙명적인종말이찾아온다. 윤곽이그려지는모든왕국은감정에호소하는정치 Demagogy 로끝날것이다. 정의定義가되는일체의신성은복마전 Pandemonium 으로해소된다. 그리스도숭배는인간사상의이긴진화의종착점이다. 천사들, 성인들, 처녀들이신과함께하늘에서다스린다고교리문답에서말한다. 마귀들과저주받은자들은영원한형벌의지옥에서산다. 초세속적사회에는왼편과오른편이있다. 방정식이완결될때가되었고, 이신비적위계질서가땅으로내려와현실에서나타날때가되었다.

연못에자신을비추어보는첫번째여자가자기자신의모습을끌어안기위해팔을벌리는것을나타낼때밀턴 [4] 은펜놀림마다인류를그린것이다. 그대가찬양하는이신, 오사람이여! 그대가만든이신, 선하고정의롭고전능하고전지하고불멸하며거룩한신, 이는그대자신이다. 이완전함의이상은그대양심의열렬한거울에정화된그대의모습이다. 신, 자연과사람은동일한존재의세모습이다. 사람은천번의진화를거쳐자의식에도달한신이다. 예수그리스도안에서사람은스스로신임을느꼈다. 그리고그리스도교는참으로신이자참으로인간의종교이다. 애초부터'나'라고말한신말고다른신이없다. '그대'말고다른신이없다.

이런것이종교의신비와자신의신비를벗겨내면서시효가끝나는철학의마지막결론이다.

II

그때부터는모든것이끝난것으로보인다. 인류가스스로를찬양하고자기자신을신비화하기를그만두면서신학적문제는영영제거되는것같다. 신들은떠났다. 사람은더이상이기주의로염려하고죽을필요가없다. 내주위로얼마나무서운고독이펼쳐지며, 내영혼의바닥을파고드는가! 나의고양高揚은소멸과닮았으며, 내가신이된이래로나는자신을더이상그림자로밖에보지않는다. 나는언제나나인것이가능하지만나를절대자로간주하는것은내게아주어렵다. 그리고내가절대자가아니라면나는관념의절반일뿐이다.

약간의철학은종교와멀어지게하며많은철학은종교로데려다준다고, 내가모르는어떤냉소적인철학자가말했다. 이관찰은부끄럽게만드는관찰이다.

모든과학은이어지는세시기를거치며발달하는데, 이를문명의거대한시기들에비유해종교적시대, 궤변적시대, 과학적시대로부를수가있다.[5] 이와같이연금술은나중에가서화학이라고불린, 그리고그확정된구도構圖가아직발견되지않은과학의종교적시기를가리킨다. 이는점성술이또다른과학적건축물인천문학의종교적시기를이루는것과똑같다.

그런데, 보라. 60 년간현자의돌을조롱한후에화학자들은경험에이끌려더이상감히물체의전이가능성을부정하려하지않는다. 반면에천문학자들은세계의역학 mécanique 에의해, 세계의유기체학 organique, 즉바로점성술같은그무엇이있지않나생각하게된것이다. 내가방금인용한철학자의예를따라약간의화학은현자의돌을외면하게하고, 많은화학은현자의돌로데려다준다고, 그리고비슷하게약간의천문학은점성술자들을비웃게만들고많은천문학은점성술사들을믿게할것이라고말해야할경우가아닌가?[6]

나는확실히여러무신론자들보다기적에대한취향은덜가지고있다. 하지만나는기적과예언, 주술등이어떤잠재적힘들에의해, 혹은옛날에

사고를사색적생활에맞게만드는이필요를없애보라. 그러면창조의작업반장은네발달린동물의첫번째에지나지않을것이다.

하지만효용가치는어떻게교환가치가되는가? 왜냐하면, 가치의두종류는생각안에서는 (전자는후자를계기契機로해서만인식되므로) 동시적인데도불구하고계기繼起관계를유지한다는것을주목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교환가능한가치는유용한가치의어떠한반사에의해주어지는데, 이는신학자들이삼위일체에서성부가일체의영원을사색하면서성자를낳는다고가르치는것과같다. 이가치관념의발생은경제학자들이충분히주의깊게주목하지않았다. 이점에유념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므로내가필요로하는물건들중에아주많은수가자연에는미미한양으로밖에존재하지않거나전혀없으므로, 나는내게결여된것의생산에협조하지않을수없다. 그리고나는그렇게많은것들에착수할수없으므로다양한직능을가진다른사람들, 내협력자들에게그들의산물일부를내산물과의교환으로내게양도하라고제안할것이다. 그러므로나는내특정한산물을언제나내가소비하는것보다더많이가질것이다. 마찬가지로내짝들은각자의산물을그들이사용하는것보다더많이가질것이다. 이무언의협정은거래에의해실행된다. 이때우리는두가치의논리적계기繼起가이론에서보다역사에서더잘나타나는것을보여줄것이다. 산업이사람들에게어떤교환이라도생겨나게해주기전에이들은자연적재화들 (이는사람들이원시공동체라고부르는것이다) 을차지하려고다투면서수천년을보낸것이다.

그런데자연적이든산업적이든모든산물이가지는사람의생존에도움을주는능력은특별히효용가치라고칭해진다. 그산물들이서로대가로제공될수있는능력은교환가치라고칭해진다. 근본적으로이는같은것이다. 후자는전자에대체代替의관념을더해줄뿐이기때문이다. 그리고이모든것이한가한미묘함에서나온것으로보일수있다. 실무에서는그결과들이놀랍고, 번갈아가며다행스럽다가치명적이었다가한다.

이처럼가치에설정된구분은사실에의해주어지며, 아무런자의적인것도없다. 이법칙을자신의행복과자유의이익이되게돌리는것은이법칙을감수하는사람의몫이다. 발라 (Walras)[10] 씨라는작가의아름다운표현에따르면노동은자연의인색함에대해선포된전쟁이다. 이에의해서부와사회가동시에생겨난다. 노동은자연이우리에게주는것보다비교도할수없이더많은재화를생산한다. 이처럼프랑스의제화업자들만해도페루, 브라질, 멕시코의광산들을합친것보다열배는더많은것을생산한다. 그러나노동은자연적가치들에가하는변형으로써자신의권리를확장하고무한히배증해서점차로모든부가산업적계통을거쳐서그것을창조한자에게돌아가며, 1 차원료의보유자에게는거의아무것도남지않게된다.

그러므로이러한것이경제발전의진행이다. 처음순간에는토지와자연적가치들이전유된다. 그다음에는노동에의한조합과분배가완전한평

제 2 장가치에관해

Ⅰ. 효용가치와교환가치의대립

가치는경제라는건축물의모퉁잇돌이다. 우리에게자신의일을계속해나가도록위임한예술가인신은누구에게도이를설명하지않았다. 그러나약간의표시들을보고서사람들이이를짐작한다. 가치는실제로두얼굴을하고있다. 하나는경제학자들이사용가치혹은가치그자체라고부르는것이다. 또하나는교환가치혹은여론상의가치이다. 이두측면에서가치가낳는효과, 그것이결코안정되지않은한에서, 혹은더철학적으로표현해서그것이구성되지않은한에서아주불규칙적인효과는이구성에의해완전히달라진다.

그런데, 유용한가치와교환가치의상관성은어디있는가? 구성된가치라는것은어떻게이해해야하며, 어떠한반전에의해이구성이실행되는가. 이는정치경제학의대상이자목표이다. 나는독자에게앞으로이어지는것에모든주의를기울일것을간청한다. 본장은이저서에서약간의선의를요하는유일한장이다. 내편에서는점점더단순하고명확하게하고자노력할것이다.

내게약간의도움이될수있는모든것은가치를가진다. 그리고나는쓸모있는것이풍부할수록그만큼더부유하다. 이점에는아무어려운것도없다. 우유와고기, 과일과곡식, 털, 설탕, 면화, 포도주, 금속, 대리석, 끝으로토지, 물, 공기, 불과태양은내게사용가치, 본성과용도상가치이다. 내생존에도움이되는모든것들이그것들중어떤것들, 예를들어빛만큼풍부하다면, 다시말해각종가치들의양이무한정이라면내안녕은영원히보장될것이다. 나는일할필요가없을것이며, 생각도하지않을것이다. 이런상태에서는물건들에언제나효용이있을것이지만, 그것들이가치를띤다고말하는것은더는참이아닐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곧알아보겠지만가치는본질상사회적관계를가리키기때문이다. 그리고우리가유용성이라는관념을획득한것은그자체가오직교환에의해서, 사회로부터자연으로일종의회귀를시킴에의해서이다. 문명의모든발전은그러므로끊임없이새로운가치들의창조를촉발해야하는인류가처한필요성에관계된다. 마찬가지로사회악들은우리가우리자신의관성에맞서벌이는지속적인 투쟁에그제 1 원인을가진다. 사람에게서그의사고에촉구를하고, 그의

그렇게언급되었듯이비의적능력에의해생성된이상한효과를말하는왜곡된이야기들일뿐이라는생각을금할수없다. 우리의과학은아직아주잔혹하고아주악의로가득차있다. 우리의박사들은그리보잘것없는지식에대해아주큰몰상식을보여준다. 그들은자신들이전개하는견해를보호하기위해자신들에게방해가되는사실들을아주뻔뻔하게부정해서, 나는이강한정신의소유자들을무당들과마찬가지로불신한다. 그렇다, 나는확신한다. 우리의조잡한합리주의는많은과학정신에의해정말로경이롭게될시대의출범이다. 우주는내눈에는모든것을기대해야할마술의실험실일뿐이다…. 이렇게말해두고서내주제로돌아간다.

그러므로내가종교적진화들에대해행한빠른해설후에누군가상상하기를형이상학이다음의네낱말, 신의존재 l'existence de Dieu, 영혼의불멸에관해최종답을말했다고생각하려했다면그는잘못에빠지는것이다. 다른데서도그렇지만여기서, 이성의가장선진적이고가장잘확립된결론, 신학적문제를영구적으로해결한것으로여겨지는결론은우리를시원始原의신비주의로데려가며, 불가피한철학의새로운자료들을함축한다. 종교적견해들에대한비판은우리로하여금오늘날우리자신에대해, 그리고종교들에대해웃음짓게한다. 그렇기는하지만이비판의요체는문제의재생산일뿐이다. 인류는, 내가글을쓰고있는시점에, 인류에게고대의신관념과동등한무엇인가를인식하고언명하기직전에있다. 그리고이는옛날처럼더이상자생적운동에의해서가아니라성찰을하며, 그리고불가항력적인변증법의힘으로그렇게될것이다.

나는불과몇마디말로내의견을피력할것이다.

철학자들이주저하기는했지만, 마침내의견의일치를본한가지가있다면, 이는의문의여지없이지성과필연성의구분, 사유의주체와그객체의구분, 아我와비아非我의구분이다. 세속적용어로말하면, 정신과물질의구분이다. 나는이모든용어들이아무런실질적이고참된것도표현하지않는다는점, 그것들각각은유일하게참이고실재인절대의분리를지칭할뿐이라는점, 그리고별개로본다면그것들모두는똑같이모순을함축한다는점을잘안다. 그러나그에못지않게또한확실한것은, 우리에게절대는완전히접근불가능하다는것, 우리는오직우리의경험주의의대상으로들어오는대립항들에의해서만절대를안다는것, 그리고단일성이우리의신심을획득할수있지만, 이원성은과학의첫째조건이라는것이다.

이와같이누가생각하며무엇을생각하는가? 영혼은무엇이며, 몸은무엇인가? 나는이이원론을회피할테면해보라고말한다. 본질들도관념들과마찬가지이다. 전자는자연안에서분리된것처럼보인다. 이는후자가오성안에서그런것과마찬가지이다. 그리고신관념과영혼불멸의관념이그동일성에도불구하고철학에서는계기적으로, 그리고모순적으로제기된것과동일하게아와비아는절대안에서융합됨에도불구하고자연에

서는별개로, 그리고모순적으로제시된다. 그리고우리는생각하는존재들과동시에생각하지않는다른존재들도대한다.

그런데누구든지이를성찰하는수고를한사람이라면, 오늘날그러한구분은비록실현되었더라도이는이성이마주칠수있는더불가해하고더모순적이고더터무니없는것임을안다. 존재는물질의속성들없이스스로를의식하지않듯이정신의속성들없이도스스로를의식하지않는다. 그래서정신이시간, 공간, 운동, 확고성등의범주들중어떠한것에도해당되지않아서당신에게는실재를구성하는모든특성들을상실한것으로여겨진다고하며당신이정신을부정한다면, 나는나름대로피동성말고는내게아무런상당한것도내놓지않고, 그형태말고는아무런분간할수있는것도내놓지않아서조금도 (자발적이고자유로운) 원인으로서나타나지않으며, 실체로서완전히종적을감추는물질을부인할것이다. 그리고우리는순수관념론, 즉무無에도달한다. 그러나무는살아있고사고를하는내가알지못하는것들, 자신들안에시작된종합혹은임박한분리의 (어느쪽인지모를) 상태에서존재의모든적대적특성들을결합하는것들에게혐오감을준다. 그러므로우리는이원론, 우리가그항들이거짓임을완벽히알지만우리에게참의조건이어서불가항력적으로의무를지우는이원론으로시작하지않을수없다. 우리는한마디로데카르트와함께, 그리고인류와함께나에의해, 즉정신에의해시작하지않을수없다.

그러나종교들과철학들이분석을통해분해되어절대의이론안에녹게된이래우리는정신이라는것을더잘아는것이아니며, 이점에서우리를포위하는모호성을치장하는언어의풍부성에서만옛날사람들과차이가난다. 다만, 옛사람들에게질서는세상바깥의지성을드러나게한반면에, 현대인들에게그것은오히려세상안에서의지성을드러내는것같다. 그러나그지성을안에두든지바깥에두든지, 질서에힘입어그지성을언명하는순간부터질서가드러나는곳어디서나그지성을인정하든지, 아니면그것을어디서도인정하지말아야한다. 팔면체로결정을이루는물체에지성이있다고보는것보다『일리아드』를지은머리에지성이있다고보는것이더많은이유가있는게아니다. 그리고역으로마렝고에서거둔승리를제 1 집정관을고려하지않고전략적조합덕분이라고하는것만큼이나조정자인아我를감안하지않고세상의체계를물리법칙들에관계시키는것은터무니없다. 둘수있는차이라고는, 전자의경우에서는사고하는자아가보나파르트의뇌에자리잡은반면에우주에관련해서는자아는특수한위치가없이편재한다는데있다.

유물론자들은사람이우주를자신의몸과비슷하게보아서이우주에자신의삶과생각의원리라고가정한자신의영혼과비슷한영혼을부여해그비교를완수했다고, 그래서신의존재의모든논거들은비교항자체가가설적인만큼더욱거짓된유비로전락한다고말함으로써반대의견에대해우위를점했다고믿었다.

권을차지하고, 소비자와일꾼에게서돈을뜯어내는데능숙했다. 이모든것으로관계들이넘쳐났다. 그리고우리가영구적으로우리의통계와수치들을다시들여다볼때우리는언제나눈앞에혼돈, 부동의한결같은혼돈을대할것이다.

정말이지사람들은신화시대부터우리의대혁명 57 주년인현재까지일반의행복이증가했다고믿는다. 그리스도교는오랫동안이개선의주된요인으로통해왔으며, 경제학자들이현재는자신들의원리에그개선에대한일체의영예를구걸한다. 왜냐하면결국그리스도교가사회에미친영향이무엇이었느냐는것이다. 생겨나면서부터근본적으로유토피아적인그리스도교는점차일체의경제적범주들, 노동, 자본, 임대료, 이자, 거래, 재산권을채택함으로써만, 한마디로정치경제학의최고표현인로마법을신성화함으로써만유지되고확장할수있었던것이다.

그리스도교는그신학적부분에서는생산과소비에관한이론들에생소하면서유럽문명에서는최근에떠돌이일꾼들에게공제회와프리메이슨, 일종의보험및상조계약이던것이었다. 이런관계아래그리스도교는정치경제학에아무런빚도지지않으며, 그리스도교가행한선은정치경제학에의해확실성의증거로호출될수없다. 자선과헌신의효과들은경제의영역밖에있고, 경제는사회의행복을노동의조직과정의로써획득해야한다. 잉여에대해서는나는재산권메커니즘의다행스러운효과를인정할준비가되어있다. 그러나나는이효과가이메커니즘이본성상낳게되는빈곤에의해완전히덮이는것을관찰한다. 그래서한저명한장관이영국의회앞에서얼마전에실토했듯이, 그리고우리가현사회에서이를곧증명하겠지만빈곤의진전은부의진보와병행하고이에들어맞는다. 이는정치경제학의공로들을완전히무효화하는것이다.

그래서정치경제학은그격률에의해서도그업적에의해서도정당화되지않는다. 그리고사회주의에관해말한다면, 그모든가치는정치경제학을확증한것뿐이다. 그러므로우리는정치경제학에대한고찰을재개할수밖에없다. 정치경제학만이적어도부분적으로사회과학의소재들을담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그이론들이약간의오류를숨기고있지않은지를증명하지않을수없다. 그오류를시정하는것이사실과당위를화해시킬것이고, 인류의유기적법칙을드러내어줄것이고, 질서의적극적개념을제공해줄것이다.

게도그들은견적서의그림자도갖고있지않다. 그들의각조각의기원과역사적내력, 그제작비용, 어떤목재가최상의대들보가되는지, 어떤흙을써야최상의벽돌이되는지, 작업도구와리어카에얼마를지출했는지, 목수는얼마의이익을보는지, 석수는얼마를버는지를안다. 그들은어떤것이어디로가야하는지, 어디에놓여야하는지를모른다. 경제학자들은눈앞에여기저기던져진걸작의부분들을, 사지가절단된시인의팔다리(disjecti membra poetoe) 를보고있는것을외면할수없다. 그러나그들에게는현재까지일반적조감도를재발견하는것이불가능했으며, 약간의접근을시도할때마다앞뒤가안맞는것들에만부닥쳤다. 결국결과도없는조합에절망해그들은과학의건축상의부적합, 혹은그들이말하듯이그원리들의폐단들을교리로세우고말았다. 한마디로그들은과학을부정했다.[9]

이처럼노동분업은그것없이생산이거의전무하다시피될것인데, 이는오만가지폐단을겪으며, 그중최악은노동자의의기소침이다. 기계들은저가격과함께충색充塞과실업을낳는다. 경쟁은탄압을가져온다. 조세는사회의물적인연계로서아주흔히화재나우박에맞먹는무서운도리깨일뿐이다. 신용은반드시파산과상관관계를이룬다. 재산권은여러가지남용의온상이다. 상업은주사위놀이로변질되고거기서는심지어때때로속이는것이허락된다. 간단히말해서질서가어떻게무질서를제거하기에이를지모르는가운데무질서나어디서나질서와같은비율을이루어(taxis ataxian diôkein) 경제학자들은모든게아주잘되고있다는결론을내리는입장을취했으며, 일체의개선제안을정치경제학에적대적인것으로간주한다.

그래서사회적건축물은방치되었다. 군중이공사장에밀려들었다. 기둥들, 기둥윗머리, 기둥받침, 목재, 돌, 금속이여러몫으로분배되고추첨되었으며, 웅장한사원을위해모아진이모든재료들을가지고무식하고야만적인재산권이오두막집들을지었다. 그러므로건축설계도를되찾는것만이아니라입주자들을내보내는것도중요하다. 이들은자신들의거주지가훌륭하다고주장하며, 복고 restauration 이라는말한마디에자신들의문앞에서전투대형을취하는자들이다. 그러한혼동은옛날바벨에서도없었다. 다행히도우리는프랑스어를말하고님로드의동료들보다더용감하다.

은유를그만두자. 역사적, 서술적방법은인식만행할필요가있었던한에서는성공적으로사용되었지만앞으로는쓸모없다. 수천권의단행본과표들이나왔지만우리는크세노폰과헤시오도스의시대보다더앞서지못했다. 페니키아인들, 그리스인들, 이탈리아인들은옛날에우리가오늘하는것처럼일했다. 그들은경제기술의모든규칙들에따라자기돈을투자했고, 일꾼들에게임금을주었고, 영지를넓혔고, 발송과회수를했으며, 장부를적었고, 투기를하고, 이차거래를하고망했으며, 우리못지않게독점

확실히나는다음과같은낡은삼단논법을옹호하지않는다. 일체의배치는조율하는지성을가정한다. 그런데우주안에는경탄할만한질서가존재한다. 그러므로세상은하나의지성의작품이다. 이삼단논법은욥과모세이래로아주많이논박을받아서해결책이되기는커녕풀어야할수수께끼의공식일뿐이다. 우리는질서가무엇인지를완벽하게안다. 그러나영혼, 정신혹은지성이라는말로우리가무엇을말하고자하는지를우리는절대로모른다. 그러니어떻게우리가하나의현존으로부터다른것의현존을논리적으로끌어낼수있는가? 그러므로나는더풍부한학식을가진자가했다해도세상의질서로부터신의존재증명을끌어냈다고하는것을받아들이지않을것이다. 그리고나는기껏해야철학에제안된방정식만을거기서 볼것이다. 질서의개념으로부터정신의언명까지는메워야할형이상학적 심연이놓여있다. 나는또다시문제를증명으로간주할생각이없다.

그러나이는이순간에중요한것은아니다. 나는인간이성이숙명적이고불가항력적으로존재를아와비아, 정신과물질, 영혼과몸으로구분하도록이끌린다는것을확인하고자했다. 그런데유물론자들의반론이그것이부정의대상으로삼는바로그것을증명한다는것을누가보지못하는가? 사람은자신안에서영적인원리와물적인원리를구분하니, 자신의이중적 본질을하나씩선포하고자기자신의법칙을증명하는자연자체말고무엇이란말인가? 그리고유물론이앞뒤가안맞는다는점에유의하자. 그것은 사람이자유롭다는것을부인하며부인하지않을수없다. 그런데사람이자유를덜가질수록그것이하는말은더중요성을획득하고진리의표현으로 간주되어야한다. 자신이영혼이며몸이라고내게말하는이기계의말을들을때, 그러한계시는나를놀라게하고어리둥절하게함에도불구하고내가 볼때유물론자의권위보다비교도안되게더큰권위를띤다. 유물론자는의식과자연을교정해그것들이다음과같이말하게만들려고시도한다. '나는 물질이며, 물질말고아무것도아니다. 그리고지성은앎의물질적능력일 뿐이다.'

이번에는내가공세를취해서, 몸들의존재, 다시말해순수하게몸을지닌자연의실재성이얼마나무근거한견해인지를증명한다면어쩔것인가? 사람들은이렇게말한다. 물질은불투과성이다. 무엇에대한불투과성인가? 나는묻는다. 물론자기자신에대해서다. 왜냐하면이는회피하고자하는것을인정하는일이되기에정신에대해서라고감히말하지못할것이기때문이다. 이에대해나는이두가지질문을제기한다. 그것에대해당신이아는것은무엇인가? 그리고이것이의미하는바는무엇인가?

1. 물질을정의하는수단이라고주장되는불투과성은부주의한물리학자들의가설일뿐이고, 피상적판에서도출된거친결론이다. 경험은물질에무한한가분성, 무한한팽창성, 지정가능한한계없는다공성, 열, 전기, 자기장에대한침투성, 동시에그것들을붙잡아두는성질, 부정형의성질들, 친화성, 상호영향, 수를헤아릴수없는변형이있는것을보여준다. 이

모든것은불투과성의무언가의자료와는별로양립가능하지않다. 전기는 물질의다른어떤성질보다더반발이나저항의관념으로서불투과성으로 인도할수있는것으로, 천가지상황에따라변하며온전히분자적인력引力에좌우된다. 그런데이인력보다더불투과성과양립할수없는것이무엇인가? 끝으로엄밀하게물질의투과성의과학이라고정의할수있는과학이존재하며, 이는화학이다. 실제로사람들이화학적조성이라고칭하는것은 투과와어떻게다른가.[7] …한마디로물질로부터는그형태밖에알수가 없다. 실체에관해서는무無다. 그러므로비가시적, 불가촉적이고, 강제 불가능하고언제나변화하고언제나달아나며, 생각에오직불투과성이라 서자신에관해그변장한모습만보게하는존재의실재성을단언하는것이 어찌가능한가? 유물론자여! 나는당신에게당신감각의실재성을증언하기를허락한다. 그감각들을유발하는것에관해말한다면, 당신이그에관해말하는모든것은다음의상호성을함축한다. (당신이물질이라고부르는) 무언가는 (내가정신이라고칭하는) 다른무언가에도달하는감각들의유발요인이다.

2. 하지만, 외적관찰에서아무것도정당화해주지않는, 참이아닌, 물질의불투과성이라는이가정은어디서나오며, 그의미는무엇인가?

여기서이원론의승리가나타난다. 물질은유물론자들과대중이상상하듯감각의증거에의해서가아니라의식에의해서불투과성이라고선언된다. 자아, 불가해한자연은자신을자유롭고독특하고영원하다고느끼고자기바깥에서마찬가지로불가해한그러나역시독특한, 그형질변화에도불구하고영원한다른자연을만나면서, 이본질이암시해주는감각과관념덕택에비아非我가연장延長을가지고불투과성이라고선포한다. 불투과성은형상적인낱말로서, 사고, 절대의분열이또다른절대의분열인물적실재성을떠올리는이미지다. 그러나이불투과성은그것없이는물질이 사라지는것으로서결국내적감각의자생적판단, 정신의 … 형이상학적 선험, 입증되지않은가설일뿐이다.

이처럼, 철학이신학적교조주의를전복한후에물질을정신화하건, 사고를물질화하건, 존재를관념화하건, 관념을실재화하건, 실체와원인을동일시해어디서나힘을대신등장시키건,— 모두아무것도설명하지못하고아무것도의미하지않는문장들인데 — 언제나철학은우리를영원한 이원론으로데려가며, 우리자신을믿도록우리에게통첩을보내면서우리로하여금정신을믿을것이아니라면신을믿도록의무화한다. 정신을자연에서분리한옛사람들과달리정신을자연으로다시들어가게하면서철학은다음의유명한결론, 연구의모든결실을거의다요약한결론으로이끌렸다. 사람안에서정신은스스로를아는반면에다른곳에서는어디서나정신은스스로를알지못하는것처럼여겨진다. “사람안에서깨어있는, 동물안에서꿈을꾸는그리고돌안에서잠을자는것…”이라고한철학자는말한다.

사회주의에관해말한다면, 그것은오래전부터플라톤과토머스모어에의해한마디로유토피아, 즉무소재無所在, 공상空想으로판단되었다.

그럼에도인간정신의명예를위해, 그리고모두에게정의가돌아가도록이를말할필요가있다. 정치경제학도입법학도그시초에서는우리가본것과다를수없었으며, 사회도그최초위치에멈추어있을수가없다.

일체의과학은우선자신의영역을확정하고자기의소재들을생산하고 수집해야한다. 체계에앞서사실들이먼저이고, 기예의세기에앞서박식博識의세기가먼저다. 다른모든과학이그러하듯시간의법칙과경험의조건에종속된경제학은사회에서일들이어떻게일어나야하는지를탐구하기전이들이어떻게일어나는지를우리에게말해주어야했다. 그리고이모든일상관행은저자들이그난장판과상충성에도불구하고아주거창하게 자신들의책에서법칙, 원리, 이론이라고부르는것으로서까다로운부지런함으로수집되고엄격한불편부당성을가지고서술되어야했다. 이과업을완수하기위해그과학의나중의진보가요할것보다아마도더많은천재성, 특히더많은헌신이필요했을것이다.

그러므로사회경제학이오늘날에도현실에대한지식이라기보다오히려미래를향한열망이라면, 이연구의요체들이모두정치경제학에있다는것도인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나는이의견이사상계의엄청난다수의견이되었다고말하면서내가일반적정서를표현한다고믿는다. 정말이지현재에대한옹호자는별로없다. 그러나유토피아에대한기피는그에못지않게보편적이다. 그리고모든사람들은진리가이두용어, 보존과운동을화해시킬공식에있다는것을이해한다.

또한아담스미스, 장바티스트세, 리카도, 맬서스그리고이들의괴상한반박자들덕분에운명의비밀, 부자의방들 atria Ditis 이드러났다. 자본의득세, 노동자탄압, 독점의기계화가모든점에서밝혀져서여론의시선앞에서뒷걸음질한다. 경제학자들이관찰하고묘사한사실들에관해사람들은추론하고추리한다. 남용의권리들, 악한습관들은, 이것들을살린 모호성이지속된만큼오랜기간존중을받다가대명천지에끌어내지자마자일반의질타를받고명운을다한다. 사회의통치는공허한이데올로기안에서사회계약의양식으로습득되는것이아니라몽테스키외가사물들의 관계에서분간한대로습득되어야한다. 그리고이미상당히사회적인성향을가진좌파는학자, 집정관, 법률가, 교수심지어자본가그리고산업계수뇌등특권의대표자이자옹호자로태어난자들, 그리고백만의숙련기술자들로구성되며, 민족내에서의회의여론위에그리고바깥에위치해경제적 사실들의분석에서여러사회들의생명의비밀을파악하기를추구한다.

그러니정치경제학을건축물을세우기위해마련된자재들이즐비하게 놓인광대한평원으로나타내자. 일꾼들은열의에가득차고일에착수하려는마음에불타신호를기다린다. 그러나건축가는설계도도놔두지않고사라졌다. 경제학자들은수많은것들에대한기억을간직해온다. 유감스럽

"개인적자유그리고그표현인재산권은정치경제학에서주어진다. 평등과연대는그렇지않다."

"이체제아래서는, 각자는방해받지않으며자기앞가림을한다 (chacun chez soi, chacun pour soi). 노동은여느상품처럼등락을겪으며, 이로부터무산계급에는위험이따른다."

"누구든소득도임금도없는자는남들에게아무것도요구할권리가없다. 그의불행은그사람혼자에게떨어진다. 운명의장난으로그의운이나쁜것이다."

정치경제학의관점에서이명제들은부정할수없다. 그리고맬서스는이것들을아주놀라운적확성을가지고정식화했으며일체의비난으로부터안전하다. 사회과학조건들의관점에서바로이명제들은근본적으로그릇되고모순적이기까지하다.

맬서스의오류, 더제대로말해서정치경제학의오류는, 먹을것이없는사람은죽어야한다고말한것에도, 개인적전유의체제아래서일도소득도없는이는기아에쫓기는몸이되고싶지않으면자살로생을마감하는것밖에할것이없다고주장한것에도있지않다. 이런것이한편으로는우리의생존법칙이다. 이런것이다른한편으로는재산권의결과이다. 그리고로시[8] 씨는이점에관해맬서스의양식良識을정당화하기위해너무나많은수고를했다. 정말이지로시씨는아주오랫동안커다란애정을가지고, 자신의동포인마키아벨리가『군주론』에서세상사람들이경탄할정도로독재를권장한것과같은식으로맬서스가정치경제학을권하고자했다고하는옹호론을편것으로짐작한다. 우리에게빈곤함을산업적, 상업적자의恣意의필요불가결조건으로바라보게하면서로시씨는우리에게"이것이여러분의권리이고여러분의정의이고여러분의정치경제학이다. 이것이바로재산권이다"라고외치는것같다.

그러나천진한골 Gaul 족은이런세세한것들은모른다. 그리고프랑스에는그의흠없는언어로말하는것이더나았을것이다. 맬서스의오류, 정치경제학의근본해악은일시적조건, 즉사회가귀족계급과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나누어진다는것을최종적상태로단언하는, 특히조직된, 따라서연대적인사회에서어떤사람들은소유하고노동하고소비하는반면다른사람들은소유하지도노동하지도빵을가지지도못한다고말하는일반논제에있다. 끝으로맬서스, 혹은정치경제학은인류가누리는무제한의재생산능력에서인구와생산간균형법칙의필연성, 따라서존재를도출하는것만이필요했는데도동식물류보다더하지도덜하지도않게기아飢餓의영구적위협을보면서그결론에서길을잃는다.

간단히말해맬서스의이론은정치경제학전체를터무니없는것으로전락시킨것인데, 이것이바로이작가의위대한공로이고, 그의동료들중아무도그가세운이런공로를고려하는데신경쓰지않았다.

철학은그마지막시간에, 그러므로자신의탄생때알던것보다좀처럼더많이알지못한다. 마치그것이소크라테스의말을입증하기위해서만세상에나타난듯이엄숙히자신의몸을세마포로덮으면서우리에게이렇게말한다. 나는내가아무것도모른다는것을안다. 나는무엇을말하는가? 철학은오늘날자신의모든판단이똑같이거짓되어도똑같이불가능하고그렇지만똑같이필연적이고숙명적인두가설, 물질과정신위에기초를둔다는것을안다. 그래서옛날에는종교적불관용과철학적불화가어디서나흑암을드리우면서의문을용서하고, 호색적방종으로초대한반면에, 모든사항들에대한부정의승리는더이상이런의문도허락하지않는다. 일체의질곡에서벗어난, 그러나자기자신의성공에의해정복된사상은자신에게명확히모순적이고터무니없어보이는것을긍정하지않을수없다. 야만인들은세상이거대한영의보호를받는거대한주물呪物이라고말한다. 30세기동안시인, 입법자, 문명의현자들은세세로철학의등잔불을전승해오면서이신앙고백보다더숭고한것을적은적이없다. 그리고보라. 스스로를철학이라부른신에맞선이긴음모의끝에해방된이성은야만적이성으로서이렇게결론을짓는다. 우주는아我에의해객체화된비아非我이다.

그러므로인류는숙명적으로신의존재를가정한다. 그리고우리시대에끝을맺는긴기간동안인류가자기가설의실재성을믿었다면, 그상상할수없는물체를찬양했다면, 이신앙행위에사로잡힌후에인류가자기자신의사상의의인화일뿐이라고알고있는주권적존재에대한이견해를뻔히알면서도더이상자유롭지는않게지속한다면, 인류가자신의마술적주문을재개하기직전이라면, 그토록놀라운황홀경은깊이파고들가치가있는무언가신비적인것을감추고있다고믿을필요가있다.

나는황홀경과신비를말하지만, 그렇다고해서이로써신관념의초인적내용을부인하노라고주장하지는않는다. 새로운상징주의의필요성, 말하자면새로운종교의필요성을인정하는것도아닌것과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인류가신혹은자아나정신의이름으로원할모든것을긍정하면서자기자신을긍정할뿐이라는점은의문의여지가없기때문이다. 인류가그렇다면스스로를안다는것말고다른것으로서스스로를긍정한다는점도부인할수없을것이다. 이는일체의변신론으로부터와마찬가지로일체의신화로부터나온다. 게다가이긍정은불가항력적이므로의문의여지없이그것은가능하다면과학적으로확정하는것이중요한비밀스러운관계들에관련된다.

다시말해무신론, 즉인간주의는그비판적이고부정적인부분모두에서는참이지만, 자연의인간그자체에주목할경우에, 인류가신의딸이고, 유출이고, 형상이고, 반영물이거나말씀이라는인류에관한이첫번째언명을외람된판단으로제쳐놓는경우에인간주의는내가말하건대이처럼자신의과거를부인하는경우에는또하나의모순에불과할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인간주의에대한비판에착수할수밖에없다. 즉, 인류가그총체로서, 그발달의모든시기에서고려될때신의타원형의환상적인특성들도제외하고신적인관념을충족하는지, 인류가존재의충만성을충족하는지, 인류가스스로를만족시키는지를입증할수밖에없다. 우리는한마디로인류가고대의교리에따라신을지향하는지, 혹은현대인들이말하는것처럼신이되는것이인류자신인지를탐구하지않을수없다. 아마도우리는결국그두체계가외관상으로대립을이룸에도불구하고동시에참이며, 근본적으로동일하다는것을발견하게될것이다. 이경우에인간이성의무오류성은그집단적발현에서, 성찰된사유들에서처럼상당한정도로확인될것이다. 한마디로우리가신의가설을인간에대해입증하기까지무신론적부정은확정된내용을가지지못한다.

그러므로해야할일로남는것은신관념에대한과학적, 즉경험적증명이다. 그런데이증명은결코시도된적이없다. 신학은그신화들의권위에관해교리화하고철학은범주들의도움을받아사유를전개해서, 신은초월적인, 즉이성에닿을수없는개념상태에머물렀다. 그리고가설이여전히존속한다.

내가말하지만, 이가설은어느때보다활기차고더가차없는가설로서존속한다. 우리는이숙명적시기들중하나에도달해있다. 이시기에사회는과거를경멸하고미래를고뇌하면서때로는새로운신앙을준비하는수고를몇몇고독한사상가들에게맡기고정신없이현재를끌어안고, 때로는자신이누리는것들을상실한깊은심연으로부터신에게외치고구원의신호를요구하거나아니면자신의혁명의광경에서, 희생제물의내장에서그러듯자기운명의비밀을찾는다.

재가무엇을더강변할필요가있는가? 신의가설은정당하다. 왜냐하면그것은모든사람에게불가항력적으로과해지기때문이다. 그러므로그것은누구도비난할수없을것이다. 믿는자는신이존재한다는가정에관해모름지기내게동의할수밖에없다. 부정하는자도이에관해내게동의할수밖에없는데, 그자신이나보다앞서이가정을했으며, 일체의부정은그에앞선긍정을함축하기때문이다. 의심하는자에관해말한다면, 그는자신의의심이필연적으로조만간그가신이라부르게될, 내가모르는그무엇을가정한다는것을이해하도록잠깐성찰하는것으로충분하다.

그러나내가내사고의사실로부터신을가정할권리를보유한다면나는신을긍정할권리를정복해야한다. 다시말해, 내가설이불가항력적으로부과된다면, 그것은그순간에는내가주장할수있는모든것이다. 왜냐하면, 긍정한다는것은확정한다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모든확정은참이기위해서는경험적으로주어져야한다. 실제로확정을말하는자는관계, 조건성, 경험을말한다. 그러므로신개념의확정이우리에게경험적증명에서나와야하니우리는이고귀한미지의탐구에서경험에의해주어지

동자, 이두인간계급의재산비율을거기서도출하기가, 또한일체의상업적기복起伏을설명하기도쉬울것이다. 이는증명에따라붙는일련의보조정리들일것이다.

그런데그러한비율이존재하고평가가능하게되려면반드시내외적법칙이임금과판매가격의구성을지배할필요가있다. 그리고현상태에서임금과가격이달라지고끊임없이오르락내리락하므로가치를변동시키고등락시키는일반적사실, 원인이무엇인지, 그리고어떤한계내에서이등락이행해지는지를묻게된다.

그러나이질문자체는여러원리들에상반된다. 왜냐하면등락을말하는자는반드시가치의무게중심이끊임없이가치를데려다주는평균방향을가정하기때문이다. 그리고아카데미가이윤과임금의등락을확정하라고요구할때바로이것은가치를확정하라고요구하는것이다. 그런데이것이바로아카데미의양반들이배척하는것이다. 그들은만약가치가가변적이라면바로이에의해확정이가능하다는것, 가변성은확정가능성의지표이고조건이라는것을이해하려들지않는다. 그들은가치는언제나변동하며결코확정될수없다고주장한다. 이는마치"진자의초당등락수, 진폭, 경험이행해지는곳의위도와고도가주어졌을때진자의길이가정해질수없다, 이진자가운동중이기때문이다"라고주장하는것과같다. 이런것이정치경제학의제 1 신조이다.

사회주의에관해말한다면, 이는그문제를더잘이해했다고도이에유념한다고도보이지않는다. 그것의여러기관들중에어떤것들은그문제를간단히제쳐놓고분배를배급으로대체한다. 즉사회유기체로부터수와측정을추방한다. 다른기관들은당황해도망치면서임금에보편적투표를적용한다. 이런빈약함이수천수만의바보들을발견한다는것은말할것도없다.

정치경제학의유죄선고는맬서스의다음유명한문구에서정식화되었다.

"이미점유된세상에태어난한사람을만일그의가족이먹여살릴수단이없거나사회가그의노동을필요로하지않는다면이사람은내가말하건대음식물의어느한몫이라도달라고할조금의권리도없다. 그는실질적으로땅위에서잉여적존재이다. 자연의대향연에는그에게배정된자리가없다. 자연은그에게가버리라고명하며, 이런질서를스스로집행하는데꾸물대지않는다."

그러므로정치경제학의필연적, 숙명적결론, 내가이런차원의연구에서지금까지알려지지않은증거를가지고서증명할결론은이런것이다. 소유하지못한자에게죽음을.

맬서스의사상을더잘파악하기위해거기서웅변적인겉칠을벗겨내고철학적명제로번역해보자.

기하는문제들에그들이어떤식으로그문제들을제기하게되었는지를이야기하면서만대답을한다. 그들이그이상으로나갈수있다고생각했다면, 그들은더이상경제학자들이아닐것이다.

예를들어서이윤이란무엇인가? 기업가가자신의모든비용을지불한후에그에게남는것이다. 그런데비용은노동일과와소비된가치물들, 혹은결국에는임금으로구성된다. 그러므로노동자의임금은어떤것인가? 그에게줄수있는최소의것, 즉알수가없다. 기업가가시장에내놓는상품의가격은어떠해야하는가? 그가획득할수있을최대의것, 즉여전히알수가없다. 정치경제학에서는상품과노동일과가값이매겨질수있다고가정하는것조차도, 그것들이평가될수있다는데사람들이동의하는데도불구하고금지된다. 그리고경제학자들이하는말로는이는평가가본질적으로자의적인작업으로서결코확실한결론에도달할수없는작업이라는이유때문이다. 그러므로정치경제학에따르면어떤경우에도구해지지않는두미지수의관계를어떻게발견하는가? 이처럼정치경제학은해결불가능한문제들을제시한다. 그리고그래도우리는곧정치경제학이이문제들을제시하는것은불가피하다는것, 그리고우리의세기가그문제들을해결한다는것을알게될것이다. 이것이바로내가말하기를도덕과학아카데미가이윤과임금의관계를공모에부쳐무의식적으로말을했다고, 예언하는말을했다고한이유이다.

하지만, 노동의수요가크고노동자가드물다면, 다른한쪽에서이윤이낮아지는동안임금은상승할수있으리라는것, 경쟁의밀물에의해생산이과잉이되면, 충색充塞과손해를보면서판매하는일이있고, 따라서기업가에게는이윤이없고노동자에게는일을쉬어야할위험이있으리라는것, 기계가발명되면우선은이것이경쟁자들의불씨를꺼뜨리겠고그다음으로는독점이확립되어노동자는기업가에게종속되고이윤과임금은서로역의방향으로가리라는것이사실이아닌가? 하고사람들은말할것이다. 이모든원인들과다른것들도연구되고평가되고보상될수없는가?

오! 단행본들, 역사서들. 우리는이런것들을아담스미스와장바티스트세이래로물리도록보았다. 그리고그이상은이들의문장을이리저리변경하는것밖에없다. 그러나아카데미가그문제에다른의미를부여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그문제가이처럼이해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이윤과임금의관계는절대적의미로받아들여져야하며상업의우발성과이익분할의비결정적관점에서받아들여져서는안된다. 이두가지는나중에가서자신들에대한해석을받아들여야한다. 설명을하겠다.

생산자와소비자를단한명의개인으로보고, 그의보수는자연스럽게그의산물과같다고한다음, 모든노동은초과분을남긴다는공리에따라이산물에서두부분, 하나는생산자에게그의선투입을상환해주는것, 다른하나는그의이윤을나타내는것으로구분해우리는이두부분중하나가다른하나와가지는관계를정해야한다. 그렇게하고나면, 기업가와임금노

지않아서가설을넘어서는모든것을신학의모순들에다시빠지지않도록, 그리고결과적으로무신론의항의를다시일으키지않도록삼가야한다.

III

정치경제학책에서내가모든철학의근본가설로부터어떻게출발해야했는지를말하는일이남아있다.

그리고우선, 나는사회과학권위의기초를놓기위해신의가설을필요로한다. 천문학자가세계시스템을설명하기위해외관에전적으로의존해대중과더불어궁창의하늘과평평한땅, 풍선처럼큰태양을가정하고, 동양에서서양까지공중의곡선을그리면서나중에관찰에따라그가출발점으로삼지않을수없는자료를수정은하더라도감각의무오류성을가정할때, 사실상천문철학은선험적으로감각이우리를속인다는것, 우리는우리가보지못한다는것을인정하지못했다는것이다. 그러한원리에따를때천문학의확실성은어떻게될것인가? 그러나감각들의관계는어떤경우에는수정되고스스로보완될수있어서감각의권위는요지부동인채로있으며, 천문학은가능하다.

마찬가지로사회철학은선험적으로인류가그행동에서오류를범할수도, 속을수도있다는것을결코인정하지않는다. 그것이없으면인류의권위, 즉이성의권위, 근본적으로동의어인인민주권의권위는어떻게될것인가? 그러나사회철학은인간적판단들이실제적이고직접적인판단에서는언제나참이면서도관념들의취득에따라언제나일반이성을개인적사유와일치시키고확실성의영역을무한히확장하는방식으로서로보완해주며잇따라서로를비추어줄수있다고생각한다. 이는언제나인간판단의권위를긍정하는것이다.

그런데이성의첫번째판단, 모든정치적헌법의전문前文은승인과원칙을구하는것으로서반드시이런것이다. 신은존재한다. 이는말하자면, 사회는지도의견, 사전숙고, 지성을가지고다스려진다는것이다. 이판단은우연성을배제하는것으로, 때문에사회과학에대한가능성의기초를놓는것이다. 그리고개선과진보의목적으로시도된, 사회적사실들에대한모든역사적, 실증적연구는, 물론나중에가서이판단을고려하기는하겠지만인민과더불어신의존재를가정해야한다.

이처럼사회들의역사는우리에게는신관념의장시간의확정에불과하다. 사람의운명은점진적인현시과정인것이다. 그리고고대의지혜가모든것을신성의자의적이고환상적인관념에의존하게만들어이성과의식을억압하고보이지않는주인에대한공포로운동을멈추었던반면, 새로운철학은방법을뒤집어사람의권위와마찬가지로신의권위를깨고사실과증거의멍에외에다른멍에를수용하지않아모든것을그문제들가운데최후의문제로서신학적가설을향해수렴시킨다.

인간주의적무신론은그러므로사람의정신적, 지적해방의마지막항, 결과적으로철학의마지막국면으로서모든파괴된교리의재건혹은과학적입증으로가는통로로소용된다.

나는신의가설을내가말해온대로역사에의미를부여하기위해서만이아니라국가안에서과학의이름으로실행할개혁을정당화하기위해서필요로한다.

우리가신성을사회에외부적인것으로, 사회의운동들을위에서부터조절하는것으로간주하든지 (완전히허무하고환상일개연성이아주높은견해), 사회안에내재하며비인격적이고무의식적인이이성과동일하면서본능처럼문명을진행시킨다고 (자아의비인격성과무지는지성의관념에혐오스러움에도불구하고) 판단하든지, 끝으로사회안에서수행되는모든것이그요소들의관계로부터나오든지 (능동을피동으로바꾸고, 지성을필연으로만들며, 혹은같은말이지만법칙을원인으로삼는것이장점인체계), 언제나그결과로사회적활동의발현은우리에게필연적으로지고한존재의자의自意의신호로, 아니면일반적이고비인격적인일반이성의전형적인종류의언어로, 아니면끝으로필연의말뚝으로나타나서, 이발현들은우리에게절대적인권위를지닐것이다. 그것들의계열은정신에서처럼시간상으로연결되어, 완수된사실이수행해야할사실을정하고정당화한다. 과학과운명은일치한다. 생겨나는모든것은이성에서비롯되고, 역으로이성은생겨나는것의경험에관해서만판단을내리기때문에과학은정부에참여할권리가있으며, 자문역으로서그자격의근거를이루는것은주권자로서그것의개입을정당화해준다.

모두의투표에의해신적인것으로표현되고인정되고수용되는과학은세상의여왕이다. 이처럼신가설에힘입어일체의정태적혹은퇴보적반대, 모든신학에의해제안된불수용의모든의도, 전통혹은이기심은영구히그리고불가역적으로제거되어있다.

문명을자연에결합하는연계를보여주기위해나는신神가설을필요로한다.

실제로, 이놀라운가설은자연법칙과이성법칙의동일성을함축해인간이절대자에동화되게하는것으로서우리가인간의솜씨에서창조적작업의보완물을보도록허락하며, 인간과인간이거주하는지구를연대하게하며, 섭리가우리를배치한이영지, 그래서부분적으로는우리의작품이되는영지의개발사업에서우리가만물의원리와목적을의식하게해준다. 그러므로인류는신이아니라해도신을계승한다. 혹은다른양식을선호한다면, 인류가오늘날성찰로행하는것은인류가본능적으로시작한것, 그리고자연이필연으로써완수하는것으로우리에게보이는것과같다. 이모든경우에, 그리고어떤견해를택하든, 하나는의심할수없는것으로남는데그것은행동과법의일치이다. 지적인존재들이자지성을가지고서연출되는우화의배우들로서우리는우주와영원을향해용감하게결론을내릴

이에관해사회주의자들이들이닥친다. 이들은정치경제학이대중의이익을희생시키고특권을창조할줄밖에모른다고비난한다. 그리고수탈의법률에토지법의기초가있는것을보여주면서그들은갑자기보편적수탈, 즉공동의생산과소비라는결론을내린다.

그러나여기서사회주의는비판으로부터유토피아로다시빠지며, 사회주의의무기력은그모순들에서새로이터져나온다. 공공복리를위한수탈의원칙이그모든결과를낳도록발달해사회의완전한재조직화를가져온다면, 그작품에손을대기전에이새로운조직을확정할필요가있다. 그런데내가거듭말하지만사회주의는과학으로서생리학과정치경제학나부랭이밖에가지고있지못하다. 또, 보상의원칙에맞게시민들이제공한가치물에대해갚아주거나적어도보장을해줄필요가있다. 한마디로변동의가능성에대해이들을안심시킬필요가있다. 그런데사회주의가그관리를요구하는공공재산바깥어디에서사회주의는바로이재산의보증인을취할것인가?

진실한논리로보면이굴레를벗어나기는불가능하다. 공산주의자들도유연하고평화를애호하는관념을가진어떤다른종파들보다그태도가더거침없어서, 어려움을없애고일단권력을잡기만하면모든사람들을수탈하고아무에게도보상하고보장하지않겠다고다짐한다. 근본적으로이는부당할수도배신일수도없을것이다. 재미있는데물랭 (Camille Desmoulins) 이로베스피에르에게말한것처럼유감스럽게도불을지르는것은대답하는것이아니다. 그리고사람들은언제나그런논쟁에서는불과단두대로부터돌아온다. 어디서나그렇듯여기서도마찬가지로거룩한두권리, 시민의권리와국가의권리가현존한다. 사회주의적유토피아와정치경제학의잘려나간이론들보다우월한화해의공식이있으며, 이를발견하는일이중요하다고말하는것으로충분하다. 이판국에소訴를제기하는당사자들은무엇을하는가? 아무것도하지않는다. 오히려사람들은그들이부당한일들에대해말할기회를얻기위해서만문제를제기한다고말할것이다. 나는무슨말을하는가? 문제들이그들에의해이해되기만하는것은아니다. 그리고공중이사회와인간운명의최고문제들에관해대화를하는가하면, 사회과학의실행자들은정교회의교회분열파로서원칙들에동의하지않는다. 이연구들의계기가된문제, 그저자들이그폄훼자들과마찬가지로확실히이해하지못한문제를증언하라. 이는이윤과임금의관계라는문제이다.

뭐라고! 경제학자들, 아카데미는자신도그용어들을이해하지못하는문제를공모에부쳤을것이다! 그러니그러한관념이어떻게아카데미에게다가올수있었을까?…

자! 그렇다. 내가내놓는것은믿을수없고이상하다. 하지만그런것이있다. 형이상학의문제에신화와은유로만대답하고언제나문제들을풀지도못하면서재생산하는이들인신학자들처럼경제학자들은자신들이제

의권위를부정할권리를, 가치의분해에관련해서바로이권위를발판으로하면서가졌는가? 아니다. 확실히. 사회주의가그러한경우에요구할수있었던모든것은정치경제학이이이론들을조화시키는임무를맡거나사회주의스스로이까다로운임무를맡는다는것이었다.

이엄숙한논쟁에깊이들어갈수록전체과정은두당사자중하나는보기를원하지않는반면, 다른한당사자는진행해가기를거부하는데서나오는것에서비롯되는것으로여겨진다.

일반의편익을위해정당한사전적보상을매개로하는것이아니라면아무도자신의재산권을박탈당할수없다는것이우리의공법원칙이다.

이원칙은다분히경제적인원칙이다. 왜냐하면한편으로그것은사람들이수탈하는시민의현저한지배권을가정하며, 그에대한가입은사회적협정의민주적정신에따라필연적으로가정되기때문이다. 다른한편, 보수, 혹은수탈당하는부동산의가격은목적물의본원적가치가아니라수요와공급, 한마디로의견인상업의일반법칙에따라정해진다. 사회의이름으로행해지는수탈은각자가모두를향해동의하는합의의거래에비유될수있다. 그러므로물건의가격이지불되어야하는것만이아니라합의도있어야한다. 그리고실제로보상액을산정하는것은그렇게하는것이다. 로마의법률가들이이런유비類比를취했다면그들은틀림없이공공복리를위한수탈에관해덜망설였다.

그러므로그러한것이사회적수탈권의행사보장수단 sanction, 보상액이다.

그런데, 실제로는보상의원칙이적용되어야할때마다적용되지않을뿐아니라그렇게될수도없다. 이와같이철도를개설한법률은레일이차지할부지의보상액을조문에명시했다. 그법률은운송업이먹여살리는이다수의산업들을위해서는아무것도하지않았다. 이들의손실은지주들에게갚아진부지의가액을훨씬초과할것이다. 마찬가지로사탕무로설탕을만드는제조업자들을보상해주는것이문제이던당시에국가가사탕무산업이먹여살리던, 아마도빈곤의나락으로떨어져갈다수의노동자들과종업원들에게도보상을해주어야한다는생각은누구의머리에도떠오르지않았다. 그렇기는하지만, 자본의개념과생산이론에따를때철도로자신의노동수단을빼앗기는토지소유자가보상을받을권리가있듯이, 마찬가지로철도때문에투자한자본이무익해지게된산업인도보상을받을권리가있다는것은확실하다. 그러므로그에게보상을해주지않는것은어떤이유인가? 오호라! 보상을해주는것이불가능하다는것이다. 이런정의와불편부당성의체계를가지고서는사회는아주흔하게행동하지못하는무기력에빠질것이며, 로마법의부동상태로돌아갈것이다. 희생자들이필요해진다. …따라서보상의원칙은방기되었다. 국가의여러시민계급을향한불가피한파산이있다.

수있으며, 우리가우리들가운데작업을확정적으로조직했다면, 고집스럽게창조는설명된다고말할수있다.

이처럼철학의탐구영역은정해진것이다. 전통은미래에관한모든사유의출발점이다. 유토피아는영영배제된다. 자아에대한연구는개인적의식으로부터사회적의지의발현들로이송되면서그때까지박탈되었던객관성을획득한다. 그리고역사는심리학이되고, 신학은인류학이되며, 자연과학들은형이상학이되어이성의이론이지성의공허가아니라폭넓게, 그리고직접적으로관찰가능한자연의무수한형태들로부터도출된다.

나는견해가같지않은수많은파벌을향한내선의를증언하기위해신가설을필요로한다. 나는다음이들의한恨을두려워하는것이다. 유신론자들. 이들은신의대의를위해칼을빼어들채비가되어있고, 나는로베스피에르처럼마지막무신론자의파괴에까지단두대를가동하면서도이무신론자가자신일지모른다고의심하지않는그런자를안다. 신비가들. 이들은드라므네 (de Lamennais), 키네 (Quinet), 르루 (Leroux) 등제씨諸氏의깃발아래행진하는학생들과여성들로대부분구성된당파로서'그 주인에그신하, 그신에그백성'이라는표어를가지고일꾼의임금을규율하기위해종교를부흥하는것에서시작한다. 유심론자들. 이들은내가내영혼의온힘을다해항거하는것이물질숭배교인데도내가정신의권리들을무시한다면물질숭배교를세운것이라고나를고발하는자들이다. 감각주의자들과유물론자들. 이들에게신적교리는제약의상징이고열정의예속화원리인데, 그들은말하기를그바깥에서는사람에게기쁨도, 덕성도, 천재성도없다. 절충주의자들과회의주의자들, 모든낡은철학의서적상書籍商이자출판업자들이지만스스로는철학을하지않고자신들의허가없이생각하고믿거나단언하는누구에게든지반대하며찬동과특권을가지고광범위한신도회에가입한자들이다. 끝으로보수주의자들. 수구주의자, 이기주의자이며위선자들로서이웃에대한증오에의거해신의사랑을설파하고노아의홍수이래로세상의여러불행에대해자유를고발하고, 자신들의어리석음의감정에의거해이성을저주하는자들이다.

그러므로신앙의경외를받는허깨비들을모독하기는커녕그것들을대명천지에드러나게하기만을열망하는가설, 전통적교리들과의식의편견들을기각하는대신에단지그것들을입증할것만요구하는가설, 배타적견해들로부터자신을지키면서도이성의무오류성을공리로삼고, 이풍성한열매를맺는원칙덕분에적대적종파들어느것에대해서도물론반대하는결론을내리지않을가설을고발하는것이가능하겠는가? 종교적, 정치적보수주의자들이내가주권적지성, 모든질서정연한사고의원천인그것의가설로부터출발한마당에사회질서를교란한다고비난하는일, 내가신관념의의미와내용을추구하는마당에반半그리스도교적민주주의자들이나를신의적이고따라서공화국의배신자라고욕하는일, 그리고내가철학

은그대상물안에서, 즉사회와자연의발현물안에서연구되어야한다고적확하게주장하는마당에대학의상인들이자신들의철학적생산물의무가치함을증명한무례함을범했다고내게책임을돌리는일이가능한것인가?…

나는내문체를정당화하기위해신가설을필요로한다.

신, 세계, 영혼, 운명에관한모든것에대해내가처한무지에서, 유물론자로서, 즉관찰과경험으로써진행할수밖에없고다른언어가존재하지않으므로신자의언어로결론을내릴수밖에없으며, 내공식들이본의아니게신학적이어서본래의미로받아들여져야할지아니면비유로받아들여져야할지알지못하며, 신, 인간그리고사물에대한이끊임없는사색중에사유, 말, 행동이라는세범주가포괄하는모든항들의동의성을겪지않을수없으나다른측면보다어느한측면에서아무것도단언하기를원하지않아서, 변증법의엄밀성은내가사람들이신이라부르는이미지를가정할것그이상도이하도아닌것을요구했다. 우리는신성으로가득차있다. 만물은유피테르로가득하다 (Jovis omnia plena). 우리의기념물, 우리의전통, 우리의법, 우리의관념, 우리의언어와우리의과학, 모두가이지워지지않는미신에감염되어있으며, 그바깥에서는우리는말하고행동하게되어있지않으며, 그것없이는우리는생각만못하는것이아니다.

끝으로나는이새로운논문들의출간을설명하기위해신가설을필요로한다.

우리사회는여러사건들로버거움을자각하고미래를염려한다. 이막연한예감을보편적, 내재적, 보기에따라서는영원한그러나비인격적인, 따라서말없는이성의도움으로만, 또는그것이필연이인지된다는것, 따라서사회가예감을가진다는것을함축한다면필연의관념을가지고서어떻게설명하는가? 그러므로또다시사회를압박하며사회에상象을제공하는매체혹은야차夜叉의가설이남게된다.

그런데, 사회가예언을할때는어떤사람들의입술로스스로에게질문하고, 다른사람들의입술로스스로에게답한다. 그리고현자는신자신이말했으므로경청하고신이말했다는것을이해할줄안다.

도덕및정치과학아카데미는다음과같은질문을제기했다.

이윤이임금과가지는관계를규율하는일반적사실들을정하고, 그것의각각의기복운동을설명한다.

몇년전에같은아카데미는이렇게물었다. 빈곤 misère 의원인은무엇인가? 이는실제로 19 세기가하나의사상, 평등과개혁이라는사상만을가진다는것이다. 그러나정신은원하는곳어디서나숨을쉰다. 많은이들이그질문을곱씹기에착수했다. 아무도대답하지않는다. 그러므로점술사집단은자신의질문을더명확한용어로갱신했다. 작업장에서질서가지배하는지, 임금이공정한지, 자유와특권이정당한보상을받는지, 교환의모든행위를지배하는가치의개념이경제학자들이내놓은형태로충분

의문의여지없이, 그리고나는이를인정하는첫번째사람인데, 토지의세는돈의세, 그리고모든동산및부동산가치물의세와마찬가지로자생적이고보편적인사실로서우리본성의가장깊은곳에원천을두며, 그정상적발달에의해조직의가장위력적인용수철중하나가곧되는것이다. 나는심지어자본의이자가'일체의노동은초과분을남기기마련이다'라는경구의물화物化에불과하다는것도증명할것이다. 그러나이이론, 혹은더제대로말해서이자본생산성의허구에직면해그에못지않게확실한또하나의논제가부상한다. 이는최근에최고로노련한경제학자들의눈에들어온것이다. 일체의가치는노동에서탄생하며본질상임금으로구성된다는것, 다시말해어떠한부도애초에특권에서나오는것은없으며작업에의해서만나온다는것, 결과적으로노동만이사람들간에소득의원천이라는것이다. 그러므로소작의이론혹은자본생산성의이론, 보편적실무에의해확인되면서정치경제학은일상관행추종자의자격에서정당화하지는못하면서감수할수밖에없는이론과, 우리에게가치가정상적으로임금들로구성된다는것을보여주며, 우리가증명하겠지만, 숙명적으로사회내에서순생산과총생산의등식에도달하는또하나의이론을어떻게조화시킬것인가?

사회주의자들은그기회를놓치지않았다. 노동이모든소득의원천이라는원리를취해서그들은자본의보유자들에게그들의임대료와이윤을설명하라고요구하기시작했다. 그리고경제학자들이공통의표현으로임대료와이자를일반화해첫승리를거두었으므로, 마찬가지로사회주의자들은더욱일반적인노동의원리아래자본의초야권들을사라지게함으로써보복했다. 재산권은송두리째파괴되었다. 경제학자들은침묵밖에할줄몰랐다. 그러나이새로운비탈위에서멈추지못하고사회주의는공산주의유토피아의마지막변경邊境에까지미끄러져갔다. 그리고실천적해결책이없어서사회는자신의전통을정당화하지도못하고, 약간의결함만있어도사회를수천년후퇴시킬실험에몰두할수도없는처지로전락했다.

그러한상황에서과학이처방하는것은무엇인가?

확실히그것은자의적이고파악할수없는불가능한정중앙에멈추는것이결코아니다. 더일반화하고제 2 의원리, 사실, 우월한법칙으로자본의허구와재산권의신화를설명하는것을발견하고, 이를모든부의기원을노동에두는이론과조화시키는것이다. 바로이것이사회주의가논리적으로진행하고자했다면착수해야했던일이다. 실제로노동의실재적생산성이론과자본의허구적생산성이론은둘다본질상경제이론이다. 사회주의는경험으로부터도변증법으로부터도아무것도끌어내지못하고그모순을보여주는수고만을했다. 왜냐하면사회주의는그둘중아무것도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그런데재판에서일부분에대해한문서의권위를수용하는원고는전체에대해이를인정해야한다. 서류들과증언들을떼어내는것은허락되지않는다. 사회주의는이자에관해정치경제학

이처럼사회주의는정치경제학에대한심오한비판과이학문의끊임없는발달없이는아무것도아니며, 여기서그학파의유명한경구를써먹자면, 먼저감각에없었던것으로지각되는것은없다 (Nihil est in intellectu, quod prius non fuerit in sensu). 사회주의자들의가설에는경제적실무에서재발견되지않는것은없다. 반대로, 정치경제학은아담스미스와장바티스트세가수집한사실들을절대로타당한것으로단언하면서부터부적절한랩소디에불과하다.

또다른질문, 앞의질문에못지않게논란이되는질문은이자 l'usure 혹은이자부대출에관한질문이다.

이자, 혹은말하자면활용의값은어떤성질의것이든소유주가자신의것을제공한데서뽑아내는보수다. 신학자들은이렇게말한다. 당도하는 모든것에이자가붙는다 (Quidquid sorti accrescit usura est). 신용의기초인이자는사회적자생성이자신의조직적작품에서문제시하는영역들중에 1 위로나타나며, 그에대한분석은문명의심오한법칙들을드러낸다. 고대철학자들과교회의교부들, 이들은여기서기독교시대초기몇세기사회주의의대표자들로간주할필요가있는데, 특이한비일관성에의해, 그러나그들시대의경제적관념들의빈약함에서유래한비일관성에의해소작은인정하고, 돈의이자는정죄했다. 그들에따르면, 돈은비생산적이기때문이다. 그들은결과적으로사용됨으로써소모되는물건, 그중에돈도포함하는물건의대여와소모되는일없이그산물로사용자에게이익을주는물건의대여를구분했다.

경제학자들은세貰의개념을일반화해사회의경제에서자본의행동, 혹은그생산성은그것이임금으로소비되든수단의역할을보전하든동일하다는것, 따라서토지의소작을금하든지돈의이자를인정하든지해야한다는것, 둘다같은명목으로특권의보수, 대여의보상금이기때문에그렇다는것을스스럼없이보여주었다. 이관념을통하게하고, 로마가톨릭의이자에대한파문으로두려워하는양심을안심시키는데는열다섯세기가더필요했다. 그러나결국증거와일반의의견은대금업자편이었다. 그들은사회주의에맞선전투에서승리했다. 그리고엄청난, 논란의여지없는이익들이이런식의이자의정당성으로부터사회에돌아갔다. 이런상황에서사회주의는모세가오직이스라엘사람들을위해서만만들어준법칙"외국사람에게는꾸어주고서이자를받아도좋다. 그러나동족에게서는이자를받지못한다 (Non foeneraberis proximo tuo, sed alieno)"를일반화하려고모색했지만경제적일상관행에서받아들인한관념, 즉자본의생산성이론에까지올려진소작에의해패배했다.

그러나경제학자들은후에사람들로부터소작그자체를정당화하고자본의소득이론을정립하라는호출을받아서덜행복했다. 이점에관해그들은우선사회주의자들에대항해획득한온갖이득을상실했다고말할수있다.

히정확한지, 신용이노동을보호하는지, 유통이규칙적인지, 사회의부담이모두에게동등하게주어지는지등등을알고싶어한다.

그리고실제로빈곤이소득의부족을직접적원인으로하므로, 불행과악의의경우들외에노동자의소득이어떻게부족한지를아는것이좋다. 한세기전에그렇게큰소리를냈고, 이상한숙명에의해아카데미의프로그램에서마치그것이현대의진정한고갱이인듯이끊임없이재생산되는것은언제나재산의불평등이라는같은문제다.

그러므로평등, 그것의원칙, 그것의수단, 그것의장애물, 그것의이론, 그것이지연되는이유들, 사회악과섭리적악의원인, 바로이것들이야말로불신의냉소에도불구하고세상에가르쳐줄필요가있는것이다.

나는아카데미의보는눈이별로심오하지않으며, 로마가톨릭공의회와마찬가지로새로운것에대한공포심을지니고있음을잘안다. 그러나아카데미가과거로회귀할수록, 그것은우리에게미래를비추어주며, 결과적으로우리는아카데미의영감을더욱믿어야한다. 왜냐하면진정한예언자들은자신들이공언하는것을이해하지못하는자들이기때문이다. 차라리다음의말을들어보라.

아카데미는말한다. 자발적이고사적인조합의원리를가지고곤궁의경감을위해할수있는가장쓸모있는적용방식은어떤것인가?

그리고또,

보험계약의이론과원리들을해설하고, 그역사를펴내고, 학설과사실들로부터이계약이취할수있는발달형태들과현재우리의상업과산업이처한진보상태에서행해질수있을다양한유익한적용들을도출해낸다.

정치평론가들은상업적연대의기초형태인보험이사물들에서의연합 societas in re 이라는것, 즉순전히경제적인관계에기초를둔조건들이인간의자의恣意를벗어나는하나의사회라는데동의한다. 그래서보험, 혹은이익들에대한상호보장의철학, 이는실재적 in re 사회들의일반이론에서도출될것인데, 이는보편적조합의공식을포함할것이다. 이공식을아카데미에서는아무도믿지않는다. 그리고주체와객체를동일한관점안에합쳐서아카데미는이익들의조합이론과더불어자발적조합의이론을요구할때에, 우리에게가장완벽한사회가어떤것이어야하는지를드러내고, 이로써자신의신념에더욱상반되는모든것을긍정한다. 자유, 평등, 연대, 조합을! 어떤생각할수도없는오해에의해그렇게저명하게보수적인집단이시민들에게인간의여러권리에대한이새로운프로그램을제안했는가? 이와같이가야파는예수그리스도를부인하면서구원을예언했다.

이질문들중첫번째것에관해 45 편의논문들이 2 년에걸쳐아카데미에제출되었다. 그주제가여러정신들의상태에경이롭게부응했다는증거다. 그러나수많은경쟁자들중누구도상을받을사람으로판정되지못해서아카데미는경쟁자들의부족을들어그문제를철회했지만, 실제로는논문

공모의실패가아카데미가품은유일한목표라서더기다리지않고조합을주창하는당파의기대가근거를상실했다고선언하는것이중요했던것이다.

그래서아카데미의제씨는그들이삼발이위에서공고한것을회의실안에서부인한다! 그러한모순은나를놀라게할것이못된다. 그리고신은내가그들의이런행위를범죄로보지못하게말린다. 옛사람들은여러혁명이무서운징조로선포되며, 다른기적들중에서동물들이말을하는기적도있다는것을믿었다. 이는위기의순간에대중들안에서갑자기유통하는, 그리고어떠한인간적인선행자도없어보이는이갑작스러운관념과이상한이야기들을지칭하기위한비유였다. 그만큼그런관념들은통상적인사법司法의영역을벗어난다. 우리가사는시대에그러한일은얼마든지일어날수있었다. 운명적본능과기계적자생성에의거해 — 가축들이말을했다pecudesque locutae— 조합을선포한후에, 도덕및정치과학아카데미의선생들은통상적인분별력을다시되찾아그들에게서는일상관행이영감靈感을반박하게되었다. 그러므로높은분들의견해를사람들이관심을기울인판단과분별하는법을알도록하자. 그리고현자들의이야기에서이는특히의심할바가없으며, 그들의성찰은거기에가장적게기여한다는것을확실한것으로간주하자.

그럼에도아카데미는자신의직관과아주급작스럽게결별하면서약간의후회를느낀것같다. 성찰을통해더는믿지않는조합의이론대신에아카데미는'주로빈곤계급의복지와도덕성과관련해페스탈로치의훈육과교육체제에관한비판적고찰'을요구한다. 누가아는가? 아마도이윤과임금의관계, 조합, 노동조직이결국교육체계의근저에있으리란것을. 사람의생명은끊임없는도제수업이아닌가? 철학과종교는인류의교육이아닌가? 훈육을조직하는것은그러므로산업을조직하고사회이론을만드는것이다. 아카데미는제정신이돌아온순간에는언제나다음질문으로돌아온다. 말을하는것은여전히아카데미다.

물질적행복의진보와취향은인민의도덕성에어떤영향을미치나?

극히외면적인의미에서볼때아카데미의이새로운질문은진부하고기껏해야달변가를부추기기에알맞다. 그러나아카데미는끝까지자기신탁의혁명적의미를무시해야해서, 자신의주석에쳐진휘장을걷어올렸다. 그러니아카데미는이에피쿠로스적논제에서어떤심오한것을보았는가? 아카데미는우리에게말한다.

"사치와향락취향, 대다수가그에대해느끼는각별한애호, 그에전적으로몰두하는영혼들과지성들의경향, 이를자신들의모든사업, 모든노력과모든희생의동기와목표로삼기위한개인들과국가의의견일치는이롭건해롭건예전에사람들을지배했던것보다아마도더강력한행동의원칙이되는일반적혹은개인적감정들을낳는다."

랐다고사람들에게비난을받은것과같았다. 그러므로그들은적들의도발에우선은노동이조직화되며, 개인적타산에서든, 남들과회사를이루어서든생산을하고교환을할자유말고다른노동조직은없다고주장하는것으로대답했다. 회사를이룰경우에는따라야할진행경로가민법과상법에의해규정되었던것이다. 그다음으로는이주장이반대자들에게웃을준비를하게하는데만소용되었으므로, 그들은공세를취해사회주의자들이허수아비처럼흔든이조직에대해사회주의자들스스로가아무것도이해하지못했다는것을보여주면서마침내이는사회주의의새로운괴물, 무의미한말, 엉터리에불과하다고말했다. 경제학자들의최근글들은이런한심한판단으로가득차있다.

그렇기는하지만, 노동의조직이라는말은작업장의조직, 군대의조직, 경찰의조직, 자선단체의조직, 전쟁의조직같은말들만큼이나명확하고합리적인의미를제시한다는것이확실하다. 이런점에서경제학자들의논변은한심한부조리라는도장이찍혔다. 노동의조직이유토피아와허깨비일수없다는것도그에못지않게확실하다. 왜냐하면, 문명의최고조건인노동이존재하는순간부터따라오는것은그노동이벌써경제학자들이좋다고보는것이허락된, 그러나사회주의자들은혐오스럽다고판단하는그런식의조직에종속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사회주의에의해정식화된노동을조직화하자는제안과관련해서노동이조직되어있다고하는각하사유가남을것이다. 그런데이는완전히성립불가능하다. 노동에서공급, 수요, 분업, 수량, 비율, 임금과보장중아무것도, 절대로아무것도규칙화되지않아서모든것이오히려자유의지의변덕, 즉우연에넘겨지는것이유명하니말이다.

우리로말하자면, 우리가사회과학에대해떠올린관념에인도를받아서사회주의자들에게반대하고경제학자들에게반대해노동을조직할필요가있다고도, 노동이조직화되어있다고도주장하지않을것이며, 노동은조직화된다고주장할것이다.

우리는노동이조직화된다고말한다. 즉노동은세상의출발이래로조직화되는중이며, 끝까지조직화되어갈것이다. 정치경제학은이조직의첫번째기초지식을가르쳐준다. 그러나사회주의는그것의현재형태로는조직은부족하고일시적이라고옳은주장을한다. 그리고과학의전체사명은얻어진결과들과완성되어가는중인현상들을보면서즉각실현가능한혁신이어떤것인지를끊임없이탐구하는것이다.

그러므로사회주의와정치경제학은서로우스꽝스러운전쟁을벌이면서노동의조직이라는동일한관념을밑바닥까지추적한다.

그러나둘다과학에대한불충성과서로간의중상中傷의죄가있는데, 한편으로정치경제학은자신의이론나부랭이를과학으로간주해일체의궁극적진보를부정하며, 사회주의는전통을부정하면서사회를발견할수없는기초위에재구성하려고시도하니그렇다는것이다.

텔레스는같은철학의이름으로플라톤의유토피아를반증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이래로사회적전쟁은이처럼진행된다. 현대사회주의자들은하나의불가분한과학전체를자신의것으로주장하지만이과학의내용, 한계, 방법에대해동의를이루지는못한다. 경제학자들쪽에서는사회과학이정치경제학일뿐이라고단언한다.

그러므로우선사회에관한과학이어떤것일수있는지를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과학은일반적으로말해서있는것 ce qui Est 에대한추론된체계적인식이다.

이근본관념을사회에적용해우리는이렇게말할것이다. 사회과학은사회가그래온것이아니라사회의전체생애에서, 즉그계기적발현의총체에서사회가그러한것에대해추론된체계적인식이다. 왜냐하면이유 raison 와체계가있을수있는것은바로거기뿐이기때문이다. 사회과학은인류가지속하는어떤기간에서만이아니라, 그요소들중어떤것들에서만이아니라, 그모든원리들과그존재의전체에서인류질서를끌어안아야한다. 마치사회진보가시간, 공간상확장되어갑자기하나의그림, 여러시대의연속과현상들의이어짐을보여주면서그연관성과일치성을발견할그림에모아지고고정되듯이말이다. 그러한것이살아있고진보적인전체실재의과학이어야한다. 그러한것이논란의여지없이사회과학이어야한다.

그러므로정치경제학은그개인주의적성향과배타적인언명들에도불구하고사회과학의구성부분이었으며, 그안에서그것이묘사하는현상들은광대한삼각측량의원초적말뚝들, 유기적이고복잡한하나의전체요소들과같은것일수있다. 이런관점에서단순한것에서복합적인것으로가는인류의진보는완전히과학들의진행에순응할것이며, 오늘날정치경제학의기초이자대상을이루는거슬리고아주흔히일탈적인사실들은우리에게구체적인가설들, 더우월한가설을염두에두고인류에의해계기적으로실현되는가설들로간주되어야할것이다. 그우월한가설의실현은모든난점들을풀것이며, 정치경제학을무효화하지않고도사회주의에만족을줄것이다. 왜냐하면, 내가서론에서말한것처럼, 자초지종을살펴볼때우리는인류가자신을어떤식으로표현하든지잘못에빠진다는것을인정할수없기때문이다.

이제이점을사실들에의거해더명확히해보자.

오늘날가장논란이되는문제는반론의여지없이노동의조직이다.

세례자요한이광야에서회개하라고설교한것처럼사회주의자들은도처에서세상만큼오래된이혁신을외친다. 노동을조직하라. 그러면서도그들에따를때이조직이어떠해야하는지를결코말하지않는다. 아무튼경제학자들은이사회주의자들의떠드는소리에서자신들의이론에대한침해를보았다. 이는사실상마치그들이제일처음알아야했던것인노동을몰

도덕주의자들에게는세기의감각주의, 양심팔아먹기, 그리고정부를수단으로자행된부패를고발하기에더없이좋은기회가주어졌다. 그대신에도덕과학아카데미는무엇을하는가? 지극히자동적인평온함을가지고아카데미는, 사치가아주오랫동안스토아학파와금욕주의자들, 이거룩함의거장들에의해금지되어온것인데, 이것이옛날종교와철학이호소한모든행위원칙들만큼이나정당하고순수하고위대한행위원칙으로등장하게될공무분야를신설한다. 아카데미는우리에게말한다. 행동의동기(의문의여지없이지금은오래되고낡은), 섭리상으로역사에서탐욕이그뒤를이은행동의동기를확인하라. 그리고처음것의결과에따라탐욕의효과를계산하라. 한마디로아리스티포스가자신의세기를앞서갈뿐이라는것, 그의윤리는제논과토마스아켐피스의윤리와마찬가지로승리해야했다는것을증명하라.

그러므로우리는더이상가난하기를원치않는사회, 자신이부를가지지않는한옛날에자신에게소중하고거룩했던모든것, 자유, 종교, 영광을비웃는사회, 부를획득하기위해서온갖수모를겪고온갖비웃음을사는사회를대면하고있다. 이쾌락에대한열렬한갈증, 사치에도달하려는막을수없는의지는문명에서의새로운시대의징후로서지고의명령이며, 그에힘입어우리는빈곤을근절하려고노력해야한다. 아카데미는이렇게말한다. 그다음에속죄와절제의계율, 희생과포기, 행복한비천함의윤리는어떻게되는가? 저세상에약속된보답에대해얼마나불신하는것이며, 복음을얼마나부정하는것인가! 하지만무엇보다도황금열쇠를시스템으로간주한정부를얼마나많이정당화해주는것인가! 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 세네카류의사람들이어떻게일제히그런부도덕한격률을선포했는가?

아카데미는사상을보완해우리에게다음과같이대답하려고한다.

'인신과재산에대한침해의소추와처벌에서형사기구의진보는야만시대이래가장세련된민족들의시대까지문명의여러시대를어떻게이어오고획을그어오는지를보이라.'

도덕과학아카데미의범죄학자들이자기전제의결론을미리내다보았다는것이믿어지는가? 매순간연구해야할사실, 아카데미가형사기구의진보라는말로가리키는사실은혹은교정矯正의형태에서, 혹은형벌에서문명이자유와계몽과부에서성장함에따라발현되는점진적인완화일뿐이다. 그래서형벌제도들의원칙은사회의복지를구성하는모든원칙에반비례해서, 일체의사법적장치와마찬가지로형벌체계의모든부분의끊임없는제거가있으며, 이운동의최종결론은이런것이다. 질서의강제이행은공포도처형도아니고따라서지옥도종교도아니다.

기성관념을얼마나뒤집는것인가! 도덕과학아카데미가옹호할사명을지는모든것을얼마나부정하는것인가? 그러나질서의강제이행이이세상에서도저세상에서도겪어야할처벌의두려움에더이상있지않다면, 인

신과재산을보호하는보장책은어디있는가? 아니, 형벌제도없이재산은무엇이되며, 재산없이가족은무엇이되는가?

이모든것을전혀모르는아카데미는동요없이이렇게대답한다.

'고대부터우리시대까지프랑스땅에서가족조직의여러국면들을그려보라.'

이는이런뜻이다. '가족조직의선행하는진보에의한재산평등, 자발적이고자유로운조직, 보편적연대, 물적이고화려한행복, 교도소, 법정, 경찰, 유치장없는공공질서의상태에서가족의생존조건을확인하라.'

극히대담한혁신자들의예를따라사회질서의모든원칙, 종교, 가족, 재산, 형사제도를의문시한후에도덕및정치과학아카데미가또한다음의의문을제기하지않았다는것에대해사람들은아마도놀랄것이다. 가장나은정부형태는무엇인가? 실제로정부는사회에대해일체의선제움직임, 일체의보장, 일체의개혁이나오는원천이다. 그러므로헌장에명문화된대로의정부가아카데미의문제들에대한실천적해결책을내놓는데충분한지를알아보는일이흥미로웠다.

그러나신탁神託들이귀납과분석에의해진행된다고상상하는것은신탁을잘모르는일일것이다. 그리고정치적문제가요구되는증명들의조건이거나보조명제라는바로그이유때문에아카데미는이를논문공모에부치지못했다. 그리고그러한결론은아카데미의눈을뜨게해줄것이며, 응모자들의논문을기다릴것없이자신의프로그램을완전히제거하기를서둘렀을것이다. 아카데미는앞의문제를다시내놓았다. 아카데미는이렇게혼잣말을했다.

신의작품들은그고유한본질상아름답다. 한결같이바르다 (justificata in semetipsa, 시편 19 장 9 절). 이는한마디로신에게서나온것이므로참되다. 사람에대한사상가들은길고도좁은섬광이꿰뚫은두꺼운안개를닮았다. '그러므로우리와관련해서진리는무엇이며, 종살이의특성은무엇인가?'

마치아카데미가우리에게이렇게말한것같다. 여러분, 여러분존재의가설, 시간, 공간, 운동, 사상, 사상의법칙들의가설을입증해보시오. 그다음은빈곤의가설, 조건불평등의가설, 보편적조합의가설, 행복의가설, 왕정과공화정의가설, 섭리의가설을입증해보시오!…

이는신과인류에대한온전한비판이다.

나는저명하신단체의프로그램을증거로삼는다. 내작업조건을제시한것은내가아니다. 이는도덕및정치과학아카데미다. 그런데, 나자신이무오류성을타고나지않았다면, 한마디로내가신이나점쟁이가아니라면내가이조건들을어떻게충족할수있는가? 그러므로아카데미는신과인간이동일하거나적어도상관관계라는것을인정한다. 하지만이상관성이어디있는지를아는것이문제이다. 그러한것이확실성문제의의미이며, 그러한것이사회철학의목표이다.

anarchical, 무신론적이라고, 즉일체의신적, 인간적권위에불복종한다고공언한다. 이는사회주의다.

그런데, 현대적비판은이런종류의갈등에서진리는상반되는것들중하나를배제하는것에있지않고, 오직그둘의화해에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내가말하건대, 자연에서건관념들에서건일체의적대관계는더일반적인하나의사실, 혹은반대자들을흡수해서말하자면서로일치시키는복잡한공식으로해소된다는것이과학에서는기정사실이다. 그러므로상식을가진사람들인우리는의문의여지없이미래가실현할해결을기다리며투쟁중인힘들, 그리고그들의긍정적, 부정적특성들을분석함으로써이거대한이행에대비할수없을까? 그러한작업을정확성과양심을가지고한다면, 설사그것이일거에우리를해결책에도달하게하지는못할지라도적어도문제의조건들을우리에게드러내주고이로써우리를일체의유토피아로부터지켜주는이루헤아릴수없는장점을지닐것이다.

그러므로정치경제학에서무슨필연적인것과참된것이있는가? 정치경제학은어디로가는가? 정치경제학은무엇을할수있는가? 그것은우리에게무엇을원하는가? 이런것이바로내가이저작에서확인하려고마음먹은것이다. 사회주의는무슨가치가있는가? 동일한탐구가우리에게이를가르쳐줄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사회주의와정치경제학이추구하는목표는동일한것, 즉인간들가운데의자유, 질서그리고행복이니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채워야할조건들, 즉극복해야할난관들역시이둘에동일하며, 이쪽에서도저쪽에서도모색되거나제안된수단들을가늠해보는일만남기때문이다. 그러나또한자신의관념들을실천에옮기는일은지금까지는정치경제학에만주어진것인반면에사회주의는끊임없는풍자에만몰두해왔으므로, 경제적업적들을그것들의공로에따라평가할때우리가이로써사회주의자들의열변을그정당한가치로환산해서우리의비판이외관상으로는특별하면서도절대적이고확정적인결론을취할수있을것임이그에못지않게명확하다.

이는정치경제학의고찰에깊이들어가기전에몇가지예로써더잘이해시키는것이필수적인사항이다.

II. 이론들과비판들의미흡성

우선중요한관찰을언급하기로하자. 논쟁당사자들은하나의공통된권위, 각자가스스로가지려고하는권위인과학에준거를두는데동의한다는것이다.

플라톤은유토피아주의자로서자신의이상적공화국을겸손과순화에의해그가철학이라고부른과학의이름으로조직했다. 실천가인아리스토

의는저주받고억눌렸다. 보수주의자들의민주주의자들에대한이유죄선고는재난이었다. 민주주의는본성상왕권을대체할능력이없으면서마찬가지로사회주의사상에맞지않는다. 민주주의의운명은언제나결코결말에도달하지못하면서왕권에맞서음모를꾸미는것이다. 이는곧나타났으며우리는민주주의적정치논객들의기독교및재산소유신앙에대한항거에서날마다증인이되는데, 이논객들은이순간부터인민에게버림받기시작했다.

다른한편으로, 철학은정치및종교에못지않게사회주의에생소하고적대적인것으로드러났다.

왜냐하면, 정치질서에서민주주의는수효의주권을원리로하고왕정은군주의주권을원리로하는것과마찬가지로, 또한의식의문제에서종교는신이라불리는신비적인존재, 그리고이를대표하는사제에대한복종일뿐인것과마찬가지로, 끝으로경제질서에서재산권, 즉개인의노동수단에대한배타적지배권이이론들의출발점인것과마찬가지로, 철학은이성의선험 à priori 이라자처하는것들을기초로삼아서자아하나에관념들의발생과절대지배권이있다고보고, 경험의형이상학적가치를부정하는, 즉어디서나객관적법칙대신에자의恣意와독재를두는쪽으로숙명적으로이끌렸기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사회의품에서태어나선행자도조부祖父도없이의식과사회의모든영역에서재정裁定원리를배척하고유일한진리로서사실들의관계를대신들여놓으며, 과거는미래를향해도약하는출발점으로만활용하는데동의하는학설, 그러한학설은기성권위들의반발을불러일으키고도남았다. 그리고오늘날이른바여러권위들은그내부적불화에도불구하고단하나의권위를이룰뿐인데, 이는자신들을집어삼킬태세가되어있는괴물을물리치려고단결한다.

임금의부족함과노동의불확실성에대해불평하는노동자들에게정치경제학은상업의자유를들이민다. 자유와질서의조건들을추구하는시민들에게이데올로그들은대의제로응답한다. 고대신앙을빼앗겨자신의존재이유와목표를요구하는심약한영혼들에게종교는섭리의측량할수없는비밀을제안하고철학은의문을남겨준다. 언제나빠져나갈구멍들이다! 가슴과정신이쉴명백한관념들은전혀없다! 사회주의는굳은땅을향해돛을올리고항구로들어갈때라고외친다. 그러나반사회적인사람들은항구가없다고말한다. 인류는신의가호아래사제들, 철학자들, 웅변가들, 경제학자들의지휘에따라행진하며, 우리의연안항해는영원하다.

이처럼사회는그시초부터거대한두당파로나뉜다. 하나는전통적당파로서본질상위계적이며, 고려대상이되는것에따라왕정혹은민주주의, 철학혹은종교라고차례로불리는것인데, 한마디로재산권이라불린다. 또한당파는문명의위기때마다부활해서무엇보다도앞서무정부적

그러므로이처럼신이영감을불어넣는사회의이름으로아카데미는질문을한다.

같은사회의이름으로나는대답을시도하는예언자중하나다. 과제는엄청나며, 나는이를완수한다는약속을하지않는다. 나는신이나를데려다주는데까지갈것이다. 그러나내이야기가어떤것이든그것은결코내게서나오는것은아니다. 내펜을움직이는사고는내게개인적인것이아니며, 내가쓰는것은어느것도내것이라고할수없다. 나는사실들을내가본대로전할것이다. 나는그사실들을내가말한것에준해서판단할것이다. 나는무엇이든지그것의극히정력적인이름으로부를것이다. 그리고누구도거기서모독을발견하지못할것이다. 나는자유롭게, 그리고내가배운점술의규칙에따라이순간에현자들의웅변적인입술로, 그리고인민의알아들을수없는아우성으로의견을표명하는신의소견이우리에게원하는것을구할것이다. 그리고내가우리의헌법에의해바쳐진일체의특권을부정할때, 나는결코몽니를부리는것이아니다. 나는보이지않는쇠꼬챙이가우리를떠미는곳을손가락으로가리킬것이다. 그리고내행동도내말도성질을돋우는것은아닐것이다. 나는안개를일으킬것이며, 내가벼락이치게할때, 나는죄가없을것이다. 아카데미가나에게하도록초대한이엄숙한조사에서나는진리를말할권리밖에없으며, 내가생각하는것을말할권리를가진다. 내사고, 내표현그리고진리는단하나의유일한것일수밖에없다!

그리고여러분, 독자님들, 독자없이작가가없으니여러분은내저작의절반이다. 여러분없이나는울리는종에불과하다. 여러분의주의에힘입어나는기적을말할것이다. 여러분은사회라고부르는지나가는이회오리바람, 아주무서운소음과함께번찍임과천둥과음성이솟아나는이회오리바람을보는가? 나는이회오리바람을움직이는숨겨진용수철을여러분에게손가락으로만지게하고싶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여러분이내명령에따라순수지성의상태로낮아질필요가있다. 사랑과쾌락의눈은해골안에서아름다움을, 적나라하게노출된내장들에서조화를, 검고응고된피에서생명을인식할능력이없다. 그래서사회적유기체의비밀은감정과편견이뇌를흐리게만드는사람에게는비문秘文이다. 그러한극상極上의경험은고요하고냉정한숙고에서만기대된다. 그러므로여러분의눈에생명의책장들을넘기기전, 내가여러분의영혼을이회의적정화로준비시키는것, 소크라테스, 예수그리스도, 성바울로, 성레미지오, 베이컨, 데카르트, 갈릴레이, 칸트등여러민족의위대한스승들이제자들에게모든시대에요구했던이회의적정화를감수하라.

여러분이누구이든, 곤궁의누더기를걸쳤든, 호화로운사치의옷을차려입었든나는풍요의시커먼연기도, 질서의눈을가진빈곤의독도해를입히지못하는빛나는나신裸身으로여러분을데려간다. 부자에게조건의차이가계산착오에서비롯된다는것을어떻게설득할까? 빈자는소유주가선

의를가진다는것을걸망을지고서어떻게상상하겠는가? 노동자의빈곤을파헤치는것은무위도식자에게는극히견딜수없는소일거리다. 행복한자를정당하게평가하는것이곤궁한자에게극히쓴약인것과마찬가지다.

여러분은승진했다. 나는여러분을자리에서쫓아낸다. 이제여러분은자유로운몸이다. 이제복을입은상태에서는너무많은낙관주의, 너무많은종속성, 너무많은나태함이있다. 과학은사고가떨쳐일어나기를요한다. 그런데자리를차지한한사람의사고는자기가받는보수에있는것이다.

아름답고정열적이고예술적인여러분의여주인은, 내가그렇게믿고싶은것이지만, 여러분에게만보유된다. 즉여러분의영혼, 여러분의정신, 여러분의의식은자연과예술이홀린인간들의영원한형벌을위해만든극히매력적인사치품안에들어간것이다. 나는여러분을여러분자신의이신적인반쪽으로부터분리한다. 오늘날정의를원하고한여성을사랑하는것은너무한일이다. 위대함과명확함으로써사고하려면남자는자신의본성을둘로나누고, 자신의남성적위격안에머물필요가있다. 또한내가여러분이처하게한상태에서는여러분의연인은여러분을더이상모를것이다. 여러분은욥의아내를기억하라.

여러분의종교는무엇인가? …여러분의신앙을잊으라. 그리고지혜를발휘해무신론자가되어라. 뭐라고! 하고우리의가설과다르게, 아니, 우리의가설때문에무신론자인여러분은말한다. 오래전부터사람을넘어선인성, 이생애를넘어선생애를가정할권리를가지기위해서는자신의사고를신적인것들위로올릴필요가있었다. 게다가여러분의후생수준에대해두려워하지말라. 신은이성으로자신을무시하는자에게결코화를내지않으며, 말로자신을찬양하는자에게관심을두지않는다. 그리고여러분의의식상태에서여러분에게가장확실한것은신에대해아무생각도하지않는것이다. 종교도정부들과같다는것을모르는가? 그중가장완벽한것은모두를부정하는것이라는점을? 그러므로어떠한정치적환상도종교적환상도여러분의영혼을사로잡지않기를바란다. 오늘날이것이바보도변절자도되지않을유일한수단이다. 아! 나는열정적인청년기에이렇게말했다. 나는공화국의만종이울리는소리를듣지않으리라고. 그리고우리의신부님들은흰투니카를걸치고도리아식으로교송交誦을읊는소리를듣지않으리라고. 오, 하느님, 사막의바람이신선한산들바람이되듯우리의종살이를변화시키소서! …그러나나는공화주의자들에게절망했고, 나는더이상종교도신부들도모른다.

나는아직도여러분의판단을완전히보장하기위해여러분의영혼을동정심에무감각하고, 덕을넘어서고행복에무관심하게만들고싶다. 그러나이는초심자에게는너무많은것을요구하는일일것이다. 여러분은단지동정, 행복과덕은조국, 종교, 사랑과마찬가지로가면일뿐이라는것을기억하고결코잊지말라….

게다가이두부류는하는짓이서툴고거두는열매가없다고서로를끊임없이비난한다.

사회주의자들은반대자들에게조건의불평등, 독점과경쟁이기괴하게연합해영구적으로사치와빈곤을낳는이상업적방탕함을고려하라고요구한다. 그들은경제이론들이언제나과거에맞게형성되어미래를희망없이내버려둔다고비난한다. 한마디로그들은재산권체제를인류가 4 천년전부터항거하고맞서싸워오는무서운환각이라고말한다.

경제학자들쪽에서는사회주의자들에게재산권, 경쟁, 경찰이없어도될체제를만들어보라고도전을가한다. 그들은손에악보를들고서, 모든개혁사업들은사회주의가폄하하는바로이체제에서빌려온악보들의랩소디, 사회주의가그것바깥에서는하나의관념을구상하지도정식화하지도못할, 한마디로정치경제학의표절이었을뿐임을증명한다.

매일이심각한과정의악보들이쌓이고문제가복잡해지는것을보게된다.

사회가경제적일상관행을따라서진행해가고, 발을헛딛고, 고생하고부자가되는동안사회주의자들은피타고라스, 오르페우스그리고신비에싸인헤르메스이래정치경제학과상충되는자신들의교리를세우려고노력한다. 약간의조합시도들이여기저기서그들의관점에따를때행해지기도했지만현재까지이드문시도들은재산소유의대양大洋에서길을잃어결과도없는채로남아있다. 그리고마치운명이사회주의적유토피아를공격하기전에경제적가설을남김없이활용하기로결심한듯이개혁당파는자기차례가오기를기다리면서적들의조롱을씹어삼키는처지로전락한다.

원인은바로여기에있다. 사회주의는문명의병폐를공박하기를느슨할틈없이하고, 날이면날마다정치경제학이사람의조화적끌림을충족하지못하는무능함을확인하며, 요청에요청을계속제시한다. 정치경제학은모두가하나씩상식의버림을받으며지나가고사멸하는사회주의체계들로서류를채운다. 악의끈질김은한편의불평을조장하며이와동시에개혁주의의실패가꾸준히계속되는것은다른편의악의적인조롱거리가된다. 심판은언제내려질것인가? 법정은버려졌다. 그렇기는하지만정치경제학은법정의장점을활용하며, 보증인도내세우지않으면서세상을계속지도한다. 나는소유한다, 그러므로소유한다 (possideo quia possideo).

관념의영역으로부터세상의현실로내려오면, 적대관계는더욱심각하고더욱위협적으로우리에게나타날것이다.

요몇년간사회주의가긴태풍들의자극을받아우리들가운데환상적으로모습을드러냈을때, 모든논쟁에서그때까지무관심하고미지근한태도를보이던사람들이왕정주의적이고종교적인관념을향해두려움을지니고다시달려들었다. 그최후의결말을보인것으로사람들이고발한민주주

함한다고는못해도고발하고, 온힘을다해도덕관념과제도들의재형성을추진한다.

사회주의는정치경제학을잘못된가설이라고선언하면서극소수에의한대다수의착취를위해발명된궤변을끝맺음하며, 열매로써안다 (a fructibus cognoscetis) 는경구를활용해서인간적재난의그림으로정치경제학의무능함과공허를입증해보여준다. 이재난에정치경제학이책임이있다는것이다.

그러나정치경제학이거짓이라면, 각나라에서법과관습의과학인법학도거짓이다. 왜냐하면네것과내것의구분에기초를두므로그것이정치경제학에서묘사되고분류된사실들의정당성을가정하기때문이다. 공법과국제법의이론들도대의代議정부의모든다양한형태들과함께거짓이다. 개인적취득과의사意思들의절대적주권의원칙에의존해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는이모든결과를수용한다. 여러사람들이부富의생리학으로간주하는정치경제학은사회주의가볼때도둑질과빈곤의조직화된실무에불과하다. 글로적힌이성의이름으로법학자들에의해꾸며진법학은사회주의의눈으로볼때는법적이고공식적인약탈의, 한마디로재산권의붉은제목들의편찬에불과하다. 이두과학으로자처하는것들인정치경제학과법사이의관계에서볼때, 이둘은사회주의가하는말로한다면사악함과불화의완전한이론이다. 그다음으로부정으로부터긍정으로넘어가면서사회주의는재산권원리에조합원리를대립시킨다. 그리고사회경제학을머리끝부터발끝까지새로만들힘, 즉새로운법, 새로운정치, 옛형태와는정반대되는제도들과도덕관념을새로만들힘이있다고자처한다.

이처럼사회주의와정치경제학간의구분선은그어졌고, 그적대성은확연하다.

정치경제학은이기주의의성화聖化에쏠린다. 사회주의는공동체의고양쪽으로기운다.

경제학자들은정부들이저질렀다고고발해야겠다고생각하는자신들의원리에대한약간의위반을제외하고는기정사실에관한낙관론자들이다. 사회주의자들은완수할행동에대한낙관론자들이다.

전자의사람들은마땅히그래야하는것이지금그러하다고단언한다. 후자의사람들은마땅히그래야하는것이지금그렇지않다고단언한다. 따라서전자의사람들은이성에서나올뿐인자신들에대한비판이자신들의편견에빈번한공격을가함에도종교, 권위그밖의재산권의동시대적이고보수적인원칙들의수호자로서나서는반면, 후자의사람들은비록완전히부자유한일정한종교성과사실들에대한별로과학적이지못한멸시가언제나그들학설의가장명백한특성이기는하지만권위와신앙을거부하고오직과학에호소한다.

제 1 장경제학에관해

Ⅰ. 여러사회의경제에서사실과법의대립

나는경제학이실재함을긍정한다.

이명제는오늘날감히의심하는경제학자들이별로없는것으로서한철학자가여태껏주장해온것중가장대담한명제이다. 그리고연속되는이연구들은내가바라건대인간정신의가장위대한노력이언젠가는이를보여주려는노력일것임을입증할것이다.

나는또한편으로경제학, 모든과학들중내소견으로는가장포괄적이고가장순수하고사실로가장잘번역되는경제학의진보적특성과동시에절대적확실성을긍정한다. 이과학을구체적으로논리학이나형이상학으로만들고옛철학의기초를근원적으로바꾸는새로운명제다. 다시말해, 내게경제학은형이상학의객관적형태이고실현이다. 이는움직이는형이상학, 지속성을피해달아나는도면위에그려진형이상학이다. 그리고노동과교환의법칙에몰두하는자는누구나정말로, 그리고특별히형이상학자이다.

내가서론에서말한것과더불어이는놀라울것이전혀없다. 사람의노동은신의일을계속하는것이며, 신은모든존재를창조하면서바깥에이성의영원한법칙들을실현할뿐이다. 그러므로경제학은반드시, 그리고동시에관념들의이론이면서자연적신학이고심리학이다. 이첫인상만으로도경제문제들을다루어야하는내가사전에신의존재를어째서가정해야했는지, 그리고어떤명목에서단순한경제학자인내가확실성의문제를해결하려고열망하는지를설명하기에충분했다.

그러나나는서둘러그것을말하면서여러이론들의앞뒤가맞지않는총체, 사람들이거의 100 년전부터정치경제학이라는공식명칭을붙여준그것을과학이라고보지않는다. 이는그명칭의어원에도불구하고아직은재산권의법전이거나태고때의일상관행과다른것이아니다. 이이론들은우리에게경제학의초급개념들이나제 1 부분만을제시할뿐이다. 이는그이론들이재산권처럼서로간에온통모순되고그중태반이적용불가능하게되는이유이다. 어떤의미에서는스미스, 리카도, 맬서스, 세가우리에게전해주고, 반세기전부터자리를잡고있는그러한정치경제학의부정인이런단언의증거는특히본논문에서나올것이다.

정치경제학의부족함은언제나사색적인정신들을당황하게했으며, 이들은실천을깊이파고들기에는지나치게자신들의공상을사랑하고실천을그명백한결과로평가하는데국한해애초부터현상유지에대한반대당파를이루었으며, 문명과그관습에대한지속적이고체계적인풍자에매달렸다. 반면에모든사회제도의기초인재산권은열렬한옹호자들이결코모자라지않았다. 이들은실시자 praticien 라는칭호에의기양양해서정치경제학의훼방꾼들에게계속전쟁을걸었으며, 용감하고흔히능숙한손으로일반적편견과개인적자유가합심해서세운구조물을공고화하는작업을했다. 아직진행중인보수주의자들과개혁주의자들간의논쟁은철학사에서실재론자들과명목론자들의싸움과비슷하다. 이편이나저편에서오류와옳음은동등하고, 경쟁심, 편협성과견해들의불관용이오해의유일한원인이었다고덧붙이는것은거의쓸데가없다.

이처럼두세력이세상의통치를놓고논쟁하며, 적대적인두숭배대상, 즉정치경제학이나전통, 그리고사회주의나유토피아에열이올라서로를파문에처한다.

그러므로더가시적인말로하여, 정치경제학이란무엇인가? 사회주의란무엇인가?

정치경제학은오늘까지부의생산과분배의현상들에관해, 즉노동과교환의가장일반적이고가장자생적이고따라서가장공신력있는형태들에관해행해진관찰들의모음이다.

경제학자들은그들이할수있었던한에서이관찰사항들을분류했다. 그들은현상들을묘사했고, 그것들의돌발과그관계를확인했다. 그들은거기서여러상황들의필연적특성을주목했고, 이것들을법칙이라고불렀다. 그리고말하자면사회의가장순진한발현들에서취한이지식들의총체가정치경제학을이룬다.

그러므로정치경제학은부의생산및분배와관련해서인류의가장명백하고가장보편적으로신임받는관습, 전통, 실무와일상관행의자연사自然史이다. 이런자격을가진정치경제학은사실적으로, 법적으로스스로를합당한것으로여긴다. 사실적이라는것은그것이연구하는현상들이항시적, 자생적, 보편적이기때문이며, 법적이라는것은이현상들이나름대로가능한가장큰권위인인류의권위를지니기때문이다. 이처럼정치경제학은과학, 곧규칙적이고필연적인사실들의추론되고체계적인지식의자격을지닌다.

비슈누신과비슷하게언제나죽고언제나부활하는사회주의는 20 여년전부터대여섯명계시자들의인간으로만번째환생을했다. 사회주의는사회현체제의, 그래서예전모든기구들의비정상성을주장한다. 문명화된질서는천박하고모순되고비효율적이라는것, 그자체로부터억압, 빈곤, 범죄를낳는다는것을주장하고입증한다. 사회생활의모든과거를모